

석사학위논문

축제를 통한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 제주도를 중심으로 -

Revitalization Plan for a Tourist City through
Festivities

- Focused on the Jeju Island -

제 출 자 : 양 태 현

지도교수 : 천 호 선

2008

문 화 관 리 학 과

문화행정·정책·기획 전공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축제를 통한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 제주도를 중심으로 -

Revitalization Plan for a Tourist City through Festivities

- Focused on the Jeju Island -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 6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과

문화행정·정책·기획 전공

양 태 현



양 태 현의 석사학위논문
합격으로 판정함

심 사 일 : 2008. 6. .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국문요약)

축제를 통한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 제주도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과 : 양태현

지도교수 : 천호선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국내외 투자가 이뤄지는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축제를 통하여 제주도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의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관련서적, 논문, 연구발표, 사이트, 관공서 포럼자료를 조사하였고, 각종 축제에 참여한 실무 경험들을 분석하여 축제를 통한 제주도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광의 개념, 매력, 효과와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필요성, 효과를 정의하여 서로간의 관계를 정리했다. 관광과 지역축제의 연계로 인하여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축제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형적인 관광자원이 개발뿐 아니라 무형적인 관광자원까지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이 축제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수기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의 방문을 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체험적 경험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비수기에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이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분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통계를 제시하며 제주지역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외국 지역축제의 사례, 국내 지역축제의 사례, 그리고 제주지역 축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 인한 문제 제기를 제시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제주도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지역축제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과 특수한 지역문화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어 축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

둘째, 기획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지역만의 고유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전문가들이 기획,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축제의 프로그램을 극대화 하여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축제를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해야 하고 이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력이 필수조건이다.

넷째, 관공서와 기업 그리고 조직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 간의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이익을 잘 파악하여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이 참여도이다.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도 주민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역주민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통하여 제주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여섯째, 축제의 국제화이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축제 홍보와 서비스를 보완해야 하고 특성화 이상으로 디자인 등 질적인 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관광과 연계된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주도록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재방문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에도 제주도에 축제는 많이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양질의 축제가 많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객관적인 축제 평가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핵심어 : 축제, 관광, 차별화, 전문성



목 차

국문요약	i
제 1장 서론	1
제 1절 문제의 제기	1
제 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제 2장 이론적 고찰	4
제 1절 관광의 의의	4
1. 관광의 개념	4
2. 관광지의 매력	4
3. 관광의 효과	6
제 2절 지역축제의 의의	7
1. 지역축제의 개념	7
2. 지역축제의 필요성	8
3. 지역축제의 효과	9
제 3절 관광과 축제의 효과	13
1. 관광지 재방문 유도	13
2. 관광자원 개발	14
3. 계절성문제의 극복	14



제 3장 지역축제 현황 및 사례분석	16
제 1절 지역축제의 종류 분류	16
1.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별 분류	16
2. 지역축제의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	17
3. 지역축제의 주제에 따른 분류	17
제 2절 지역축제의 현황	18
1. 축제 개최 시작별 현황	18
2. 지역별 축제 개최 현황	19
3. 축제 개최 시기별 현황	20
4. 축제 기간별 현황	22
제 3절 지역축제 관련 통계	23
1. 지역축제 참가의향	23
2. 지역축제 관람 실태	25
3. 지역축제 보완점	27
4. 지역축제 참가 할 때 기준점	29
5.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	31
제 4절 지역축제 사례	34
1. 국외 지역축제	34
2. 국내 지역축제	47
3. 제주도 지역축제	59
제 4장 발전방안	81
제 1절 문제점 제시	81



제 2절 지역축제를 위한 발전방안	82
1. 지역축제의 차별화	82
2. 기획의 전문성	84
3. 관광 상품성	85
4. 관공서·지역관련기업 협력체계 구축	87
5.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88
6. 축제의 국제화	89
제 5장 결 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표 목 차

<표 1> 지역축제 유형분류	16
<표 2> 전국축제 개최 시작 년도별 현황	19
<표 3> 2005~2006년 지역별 축제수 및 백분율	20
<표 4> 2006년 전국축제 개최시기별 현황	21
<표 5> 2007년 제주도 시즌별 축제 현황	21
<표 6> 축제 기간별 현황	22
<표 7> 제주도 축제 기간별 현황	23
<표 8> 지역축제 참가의향	24
<표 9> 지역축제 관람 실태	26
<표 10> 지역축제 보완점(1)	27
<표 11> 지역축제 보완점(2)	28
<표 12> 지역축제에 가고자 할 때 기준점(1)	30
<표 13> 지역축제에 가고자 할 때 기준점(2)	30
<표 14>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1)	32
<표 15>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2)	33
<표 16> 2008년 제주도 축제-전반기 축제	77
<표 17> 2008년 제주도 축제-후반기 축제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지역축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단위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독특한 이미지와 전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축제 자체의 수익성에 초점을 둔 민간 축제이벤트와 달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이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실제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축제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관광객 유치와 재정수입 증가를 위한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식되는 지역축제가 실제로 지역관광의 잠재적 수요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역축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해당 지역만의 매력과 방문욕구를 자극하는 전략, 즉 지역축제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재방문률을 높이고 구전홍보를 통한 신규 방문자 확대를 담보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¹⁾

세계의 관광선진국들은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통하여 지역의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 상품화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이미지가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될 정도로 지역문화축제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유명도시에서의 축제보다도 중소도시의 축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잘 보존하고 상품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

새로운 천년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곧 지방의 세계화시대가

1) 제갈돈 외.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 축제유형별 변수간 상호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06. p. 26.

2) 정경훈, 진종훈. 성공하는 문화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글누림. 2006. p. 59.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만의 독창성을 살리면서 세계 속의 지역으로 공헌하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차원에서 국제적 상호관계가 강화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국제적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의 경제, 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국제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2006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해로서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사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 받았으며, 교육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뤄졌다.

2007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국내외 투자가 이뤄지는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관광의 섬 제주에서는 많은 문화관광축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축제를 통한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더 관광자원도 많고 탐라국이라는 역사적인 자원도 풍부함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끌어 축제를 이뤄내기에는 좋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축제라는 명칭을 가진 행사는 많지만 양질의 축제는 드물며 행사를 위한 축제, 동네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 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반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는데 있다.



제주도는 축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축제가 본래의 기능이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의 전시성 행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³⁾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지역축제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관광적 이미지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역 관광이미지 형성의 관점을 동시에 연구하면서 지역축제를 어떻게 활용하여 더 나은 제주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다른 지역의 축제를 비교분석하여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교훈삼아 관광도시와 함께 문화관광축제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21세기에는 지역의 세계화가 진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전국의 각 지역들은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도시로서의 기능과 국제교류의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지금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신동일.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5. pp. 1~2.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관광의 의의

1. 관광의 개념

관광이란 인간이 자기 집에서 떠나 즐거움, 친목도모, 건강, 인격도야, 건문확대, 생활개선, 새로움의 발견, 일탈 등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며 진실, 친절, 미를 추구하는 체험과정의 총체이다. 즉, 관광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체험과정이다.

볼만(A.Bormann)은 자기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 여행하면서 관광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일시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떠나 건강, 지식, 즐거움, 일탈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소비가 뒤따르는 문화적, 사회적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관광에 해당되는 영어는 'tourism'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tourism'은 관광이라는 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목적지에서 영주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 생활권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행 등을 가리킨다.

어원으로 본다면 'tour'는 '순회(巡回)' 또는 '주유(周遊)'라는 뜻으로서 'tourism'은 사람들이 순회여행을 하는 것을 사회의 한 현상으로 파악한 말이다.⁴⁾

2. 관광지의 매력

관광객에게는 관광자원 그 자체가 주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체험관광을 통하여 바라보는 관광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 관광요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몸소 체험하는 관광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현재 또는 장래의 관광경험 중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받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현시대의 흐름이다.⁵⁾

4)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8. p. 19 .

5) 윤설민 외 3명.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관광목적지와 축제의 매력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춘천국제마임축제와 보령머드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2007. p. 130 .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어떤 특정 이미지가 형성되면, 정서성을 동반한 주관적 평가가 작용해 좋아하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하거나, 소비행동에 있어서 어느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등 행동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다.⁶⁾

특히 관광 상품은 관광지에서 직접 소비해 보지 않고서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상징성이 강한 무형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도 사전 정보와 개인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는 관광지 선택에 있어 결정적 속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관광이미지는 관광객의 가치판단에 의해 주관적이므로, 관광지의 인적·물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지가 관광객에게 송신, 전달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광객에 대하여 갖게 하는 총체적 심상이라 할 수 있다.⁷⁾

즉 관광객이 접하는 각종 정보로 형성된 그들 나름대로의 관광지에 대한 인상이 곧 이미지화가 되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며, 그 결과 관광객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맛보게 된다.

관광지가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 매력의 창조와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는 관광객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시설자원 중 어느 한가지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⁸⁾

메이오(Mayo)⁹⁾는 관광매력물이 잠재적 관광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각되어 그들로 하여금 매력물과 그것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갖게 되는 전반적인 신념이나 느낌을 관광지 매력 또는 관광지 매력성이라 정의 하였다.¹⁰⁾

리치¹¹⁾(Ritchie)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을 주기 위한 관광지의 능력에 대해서 관광객이 느끼는 감정, 믿음, 의견을 관광지 매력이라고 하였

6) 이수리. 지역축제가 지역 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춘천마임축제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7.

7) 김경호, 강성일. 관광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2001. p. 151.

8) 정선미. 관광속성이 체험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

9) 오스트레일라 태생의 심리학자

10) 윤설민 외 3명.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관광목적지와 축제의 매력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춘천국제마임축제와 보령머드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2007. p. 130.

11) 영국의 정치가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관광매력물 자체보다는 관광지 매력이라는 개념이 관광지 선택행동을 예측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¹²⁾

3. 관광의 효과

관광의 효과에서 먼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효과는 일정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이 국가 또는 지역주민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관광은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하여 체험하는 과정이므로 관광의 체험과정은 경제적 소비활동을 포함한 복합적 현상이다.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경제의 소비활동을 수반하므로 관광객의 이동이 곧 경제의 소비활동을 가져온다.

이러한 관광객의 이동이 동반하는 소비활동에 의해 생겨나는 각종의 영향을 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라 부른다. 직접효과는 승수효과를 통한 관광의 소득창출효과라 할 수 있으며, 간접효과는 관광의 연관산업 파급효과 또는 국민경제의 생산력 증대효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관광은 외래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한 외화지출을 획득함으로써 무역외수지를 증대시켜 결국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외화의 지출을 가져와 국제수지를 낮추게 된다.

관광은 국제관광이나 국내관광을 막론하고 관광객과 관광대상과의 결합을 통해 국가나 지역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시킨다. 관광사업이라는 특유의 사업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창출해낸 경제적 효과는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하여 지대하다. 관광객의 경제소비의 구조는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오락비, 쇼핑 등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관광비용은 직접 그 국가나 그 지역수입에 직결되고 있다. 이 같은 관광객의 경제적 소비의 확대는 관광객을 직접 이용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¹³⁾

관광의 발전은 기타 관광관련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고용의 기회증대는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해내며, 수요를 증대시켜 관광경제의 승수효과를 낳게 한다.

12) 박수완. 관광지매력과 여행상황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 8.

13)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8. p. 213.



그리고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관산업에서 파생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또한 국민소득 창출 효과도 나타난다. 국제관광으로 인한 외화획득은 유형의 상품수출과는 달리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의 압력을 적게 받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무형의 서비스가 상품가치에 있어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민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유효한 경제정책의 수단이다.¹⁴⁾

제 2 절 지역축제의 의의

1. 지역축제의 개념

축제는 흔히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이라고 정의된다. 축(祝)은 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이며, 제(祭)는 조상이나 신에게 음식 등을 공양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축하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과, 둘째, 경사 따위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특히 고대사회를 비롯한 전통적 사회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은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등과 같은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 연희(演戲)되던 제천의례(祭天儀禮) 또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을 비롯, 마야문명의 신년의식, 잉카문명의 태양제 등이 이에 속한다.¹⁵⁾

이러한 축제의 종교성은 기독교문명을 바탕으로 한 서양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의미하는 'festival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을 뿐 아니라 카니발(carnival), 마디그라(mardi gras)등의 축제를 뜻하는 단어들도 그 기원을 부활절, 사육제 등의 종교적 축일(祝

14) 최승이, 이미혜. 국제관광론. 대왕사. 2001. p. 111 .

15)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p. 5 .



日)에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축제의 의미를 인간의 유희적 본성, 즉 ‘놀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⁶⁾

모든 지역축제는 성격상 전통문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지역축제는 전통문화의 발굴·복원·개발과 그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와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것으로서 시간·공간·주체라는 세 가지의 필연적 문제가 개입된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전통문화는 풍토·역사·생활 속에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생성되고, 전승된 문화이며,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통문화가 형성·전승시키는 것이 전통문화이다. 이렇게 형성된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상품화시킨 형태 중 하나가 지역문화축제이다.¹⁷⁾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보면 크게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지닌 종합적인 지역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 공연행사란 각종 공연, 전시회 등을 말하는데, 공연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관람객 또는 청중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육성과 지역이미지 개선 효과, 관광 효과, 지역경제의 과급 효과,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정체성 고취 효과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란 지역주민의 생활과 총체라고 할 수 있다.¹⁸⁾

2. 지역축제의 필요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광객의 관광패턴 변화는 기존의 유명 경승지나 사찰을 관람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레저 스포츠, 축제 등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모하였다.

그 중에서도 축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이도록 모임을 개최하여 정해진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사라고 하였고, 다양한 활동

16) 이수리. 지역축제가 지역 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춘천마임축제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9~10.

17) 정경훈, 진중훈. 성공하는 문화 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글누림. 2006. p. 61.

18) 김두리. 지역축제에서 전통춤 공연의 현황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17~18.



을 통해 참가자와 관중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공공의 축하의식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축제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이며, 체험형 관광 형태이며, 일상생활에 갖지 못했던 감정에 대한 자극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¹⁹⁾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지역문화축제를 조금은 구분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적극적인 성격의 축제로 버는 즐거움이 목적인 축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기꺼이 지출을 하게끔 만드는 축제를 가리킨다.

반면 지역축제는 그 마을에서 늘 이루어졌던 지역주민들만의 축제를 말하며, 이러한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축제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행사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축제는 단순히 지역축제에 머무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문화관광축제로 승화될 수 없다.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들은 이제 지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동원된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이루는 동시에 그들을 위한 확실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하나의 문화관광이벤트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해안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정치, 경제, 역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에서 철학이 유출될 수 있으며, 여기에 그 지역의 인프라와 지역주민의 특성 및 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상품성을 지닌 축제의 형태로 보여 질 수 있는 것이다.²⁰⁾

3. 지역축제의 효과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에서 가장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축제의 개최는 삶의 질의 향상과 정서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함을 통해 자신

19) 이훈. 축제와 도시관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 24.

20) 정경훈,진종훈. 성공하는 문화 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글누림. 2006. p. 59.



을 확인하는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되어 삶의 풍요를 위한 기폭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¹⁾

이런 소비자의 욕구로 인한 지역축제의 효과는 그 지역의 매력도 제고 기능,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관광성수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관광시즌을 창출하는 기능, 전 지역의 관광지화 유발, 지역전통과 역사의 재연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이나 관광지의 활성화에 기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많은 효과를 가져 온다.²²⁾

지역축제의 효과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물리 환경적, 교육적 효과로 정리할 수 있다.

(1)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연관 산업과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며 경제적 이익을 보장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의 경제적 영향으로 외래객 방문을 인한 외화획득, 지역소득증대, 고용증대, 지방정부의 세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 및 행사관련 투자액의 규모에 크게 의존한다.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효과는 관광지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에서 일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여기에서 호텔업, 식음료업에 대한 관광객의 지출은 그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간접효과는 관광 지출이 호텔사업에서 일어났을 경우 관련이 있는 사업 즉 농업, 식음료유통사업, 수공업 등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유발효과는 관광지출로 얻은 소득을 재소비함으로써 관광 승수효과로부터 생긴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의미한다.²³⁾

이와 같이 지역축제가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즉 여가 및 문화생활에

21) 김두리. 지역축제에서 전통춤 공연의 현황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선정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2007. p. 29.

22) 신동일.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5. p. 7.

23)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356.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도 점차 커지고, 일상적인 문화소비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관광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2) 정치적 효과

정치적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축제는 개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기여한다. 리치(Ritchie)²⁴⁾는 최근에 국가적 혹은 지역 차원의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축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축제는 국제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개최 지역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외교의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의 정치적·행정적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정치적 효과는 부정적인 차원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축제를 이용함으로써 그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²⁵⁾

(3) 사회·문화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유산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준다. 즉,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립이 그 지역에서 특성화되면서 지역축제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다른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은 축제를 통해 전통, 음식, 음악, 춤, 의상, 집 등을 보여주므로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경험을 선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일으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홍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를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24) 영국의 정치가.

25) 김철원, 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 11.



(4) 물리·환경적 효과

물리 환경적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문화·지역사회·관광·도시개발 등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는 문화유산 수명을 연장, 홍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²⁶⁾

이는 문화 자원의 발굴·보전·현대화 등을 통한 국가적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지방도시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²⁷⁾

축제의 환경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그 가치를 높여주고 보존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지속성인 환경 보존, 발전 개념은 현재보다 더 나은 자원이거나 자본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현 세대에서 누리는 것만큼 후손에게 자원과 자본을 전해주어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관광활동은 문화유산을 훼손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는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러므로 환경보존, 시설물 개선, 도시환경개선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를 해야 한다.

(5) 교육적 효과

교육적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축제의 주제 자체가 교육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축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축제는 방문객의 문화,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수의 기회를 보여주므로 감상 수준을 높여 미래의 문화예술인을 육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고유의 문화유산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문화를 설명해주고 관광객들 호기심을 유발하여 새로운 문화유산과의 접촉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를 습득시킬 수 있다.²⁸⁾

26) 김두리. 지역축제에서 전통춤 공연의 현황분석으로 통한 활성화방안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p. 30.

27) 황동열.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p 21.

28) 김철원, 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 13.



제 3 절 관광과 축제의 효과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문화의 확대 등으로 사회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를 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가·문화·관광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²⁹⁾

축제와 같은 이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명소를 창출하여 행사기간에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나 축제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등이 관광객에게 매력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방문동기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기에 축제가 행해지는 지역의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³⁰⁾

1. 관광지 재방문 유도

축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홍보의 대상이 되는 무형 관광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제개최를 통해 개최지역의 새로운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의 관광 선진국에서는 지역별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지역이미지를 상승시키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³¹⁾

관광객은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방문하게 될 관광목적지의 모든 면을 고려하게 된다. 관광과 관광목적지 환경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매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관광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³²⁾

29) 창의한국. 문화관광부. 2004. p. 394.

30) 송정일, 지금은 관광연출시대. 서울. 백산출판사. 2000. p. 121.

31)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118.



그래서 관광목적지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하면서도 창조적인 매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³²⁾

하지만 관광객은 한번 방문한 관광지를 재방문하기 보다는 새로운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특성이 있고, 관광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시간이 흘러도 같은 장소에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재방문 유도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와 이벤트는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템을 통해 정적 관광자원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관광지에 생동감을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재방문 유도가 필요하다.

2. 관광자원 개발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서 축제는 개최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계기가 된다. 모든 관광지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문화, 전통, 관습 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문화유산을 축제화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축제의 개최는 관광객이 방문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³⁴⁾

관광객의 증가는 그 지역의 숙박을 비롯한 교통편 확충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므로 그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인력창출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지역 또는 도시의 미래적 발전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³⁵⁾

관광자원을 통한 축제의 활성화는 관광객 방문의 공간 분산을 유도 할 수 있고, 개최지역의 관광이미지를 촉진시키며, 홍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계절성문제의 극복

관광산업은 계절성을 갖는 특징에 따라 대부분의 관광지는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이 있다. 비수기에는 유흥인력과 유흥시설이 발생하고, 성수기에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갖게

32) 윤설민 외 3명,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관광목적지와 축제의 매력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춘천국제마임축제와 보령머드 축제를 중심으로, 2007. p. 130.

33) 오상훈 외, IPA를 이용한 섬 관광지 매력성 평가- 제주섬의 사례, 관광연구, 2005. p. 48.

34)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115.

35) 황동열,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p. 25.



된다. 그러나 비수기 축제 개최는 유희인력과 유희시설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³⁶⁾

이것은 곧 관광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기간별 분포가 분산이 되어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광·여가 환경의 변화는 관광산업이 문화산업, 레저스포츠산업과 함께 축제를 이끌어 내기에 더욱더 다양화 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중시하는 관광객의 관심에 적극 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제는 관광지로서 해당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축제는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즉 경제적 효과, 정치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물리 환경적 효과,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제와 관계없는 지역의 관광지와 지역의 특징, 상품 등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계절적 문제의 극복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과 축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

36)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p. 118~119.



제 3 장 지역축제 현황 및 사례분석

제 1절 지역축제의 종류 분류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대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축제의 현상에서는 개최기관별, 프로그램별, 개최목적별, 자유유형별, 실시형태별로 구분할 수가 있다.³⁷⁾

<표 1> 지역축제 유형분류

	구 분	세 분 류
축제	개최기관별	지역자치단체주최 축제, 민간단체주최 축제
	프로그램별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개최목적별	주민화합축제, 문화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자원유형별	자연, 조형구조물, 생활용품,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음식, 전통문화
	실시형태별	축제, 지역축제, 카니발, 축연, 퍼레이드, 가장행렬

자료 : 이경모.이벤트학원론.2005. 표1-6 이벤트유형분류; 참고

지역축제는 축제를 개최목적과 행사내용의 구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지역축제의 개최목적별 분류가 가능하고 구성형식에 따라도 구분할 수 있다.

1.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별 분류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문화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화합축제는 해당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오는 전통문화축제를 일컬으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군민의 날 축제 등 자연 의존형 축제가 많다.³⁸⁾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하며 비교적 규모가 크다.

37)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348.

38)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 14.



산업축제는 농림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산업축제는 비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관광축제를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 즉 농림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특수목적축제는 환경보호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³⁹⁾

2. 지역축제의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내용의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로는 전통문화 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문화축제는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축제로 제례 의식,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 등이 내포한다. 예술축제는 음악, 미술, 연극 등 현대적인 전시예술 및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된 축제에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한 축제를 의미한다. 종합축제는 전통문화 축제형식, 예술축제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프로그램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축제를 가리킨다. 기타 축제는 아가씨선발대회 축제 등의 오락 프로그램 위주와 추모행사 및 이와 관련된 학술행사 등 주로 독창성이 단일한 소재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3. 지역축제의 주제에 따른 분류

축제의 주제가 되는 자원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자연, 조형구조물, 생활필수품, 역사적 사건, 특산물, 역사적 인물, 음식, 전통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는 환경 친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고, 조형구조물은 각종 조형구조물을 주제로 한 축제이며, 생활용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주제로 한 축제로 주로 바자회 등을 말한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그 당시의 사건과 인물을 주제로 재현과 추모를 위한 축제이고, 특산물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음식도 특산물과 비슷한 그 지역의 음식을 주제로 하여 먹고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39)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350.

40) 김철원, 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 8.



다.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는 직접체험을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시킬 수 있다.⁴¹⁾

이처럼 모든 축제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지역유산이나 특유생활방식을 기념하는 주제로 개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주제가 축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축제를 단일화하고, 프로그램의 방향과 일관성을 제시하므로 축제의 방문객들이 축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역적인 특색을 잘 반영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들을 잘 연계시키면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제 2 절 지역축제의 현황

1. 축제 개최 시작별 현황

축제의 발생 시기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⁴²⁾

우리나라의 축제 개최 시작별 통계를 보면 일제의 침탈기와 해방 이후의 6.25를 거쳐 오늘날 근대화, 산업화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어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축제가 증가했다.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축제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5년 간격으로 거의 두배씩 증가를 했다.

특히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겨난 축제들의 수가 전체 축제 중 64%에 가깝다.

즉, 최근 10년 사이에 지역축제의 수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41)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p. 350~351.

42) 이경모, 이벤트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355.

43) 류정아 외,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46.



<표 2> 전국축제 개최 시작 년도별 현황 (단위 : 수/%)

최초의 개최 년도	축제 수	백분율(누진율)
1945년 이전	5	0.4
1946-1950	1	0.1(0.5)
1951-1955	2	0.2(0.7)
1956-1960	8	0.7(1.4)
1961-1965	19	1.6(3.0)
1966-1970	19	1.6(4.6)
1971-1975	30	2.6(7.2)
1976-1980	21	1.8(9.0)
1981-1985	61	5.2(14.2)
1986-1990	75	6.4(20.6)
1991-1995	150	12.8(33.4)
1996-2000	358	30.4(63.8)
2001-2005	394	33.5(97.3)
2006	11	0.9(98.2)
미상	7	0.6(98.8)
무응답	15	1.3(10.0)
계	1176	100.0

자료 : 류정아 외.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 축제개최 시작 년도별 현황 p. 45.

2. 지역별 축제 개최 현황

지역별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몇 년 전만해도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했지만 2006년도에는 경기도가 152개 축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원도로 124개를 차지한다. 서울은 87개이며, 광역시로는 부산이 83개로 가장 많고, 울산과 대전광역시가 각각 19개, 15개로 가장 적다.⁴⁴⁾ 제주도는 관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조금 낮은 수인 51개의 축제를 개최 했다.

44) 류정아 외.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45.



<표 3> 2005~2006년 지역별 축제수 및 백분율

시도	축제수	
	축제수	백분율
서울특별시	87	7.4
부산광역시	83	7.1
대구광역시	28	2.4
인천광역시	44	3.7
광주광역시	26	2.2
대전광역시	15	1.3
울산광역시	19	1.6
경 기 도	152	12.9
강 원 도	124	10.5
충 청 북 도	68	5.8
충 청 남 도	88	7.5
전 라 북 도	76	6.5
전 라 남 도	105	8.9
경 상 북 도	101	8.6
경 상 남 도	109	9.3
제 주 도	51	4.3
합 계	1176	100.0

자료: 류정아 외.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5~2006 지역별 축제수 및 백분율 p46

3. 축제 개최 시기별 현황

축제 개최시기와 기간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가을에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이는 봄에 개최되는 축제의 두 배 가량이 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가을이 정서적으로 가장 감성적인 계절이고 날씨도 나들이하기에 적절하여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겨울축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제주도는 전국적인 통계와 달리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축제의 절반인 28개

45) 류정아 외.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48



가 여름시즌에 개최되고 있고, 그 다음이 봄, 가을, 겨울 순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표 4> 2006년 전국축제 개최시기별 현황

축제 개최시기	축제 수	백분율
1월	25	2.1
2월	60	5.1
3월	49	4.2
4월	147	12.5
5월	135	11.5
6월	50	4.3
7월	85	7.2
8월	101	8.6
9월	129	11.0
10월	329	28.0
11월	28	2.4
12월	29	2.5
단오(음력5월5일), 격년제 등 기타	9	0.9
계	1176	100.0

자료 : 류정아 외.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축제 개최식별 현황. p. 48.

<표 5> 2007년 제주도 시즌별 축제 현황

축제개최 시기	축제 수
봄	14
여름	28
가을	13
겨울	4
합계	59

자료 : 2007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07. pp. 158~162.



4. 축제기간별 현황

축제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동안 벌이는 축제가 2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이틀 동안으로 20.4%를 차지하였다. 짧은 기간의 행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로 11일 이상의 장기간 축제가 8.2%나 차지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⁴⁶⁾

제주도는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이 삼일과 하루 동안 벌이는 축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여름밤의 해변축제처럼 장기간 이루어진 축제도 있었다.

<표 6> 축제 기간별 현황

축제 기간	축제 수	백분율
11일	96	8.2
10일	35	3.0
9일	27	2.3
8일	17	1.4
7일	27	2.3
6일	26	2.2
5일	93	7.9
4일	112	9.5
3일	232	19.7
2일	240	20.4
1일	246	20.9
무응답	25	2.1
계	1176	100.0

자료: 류정아 외.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축제 기간별 현황 p. 48.

46) 류정아외.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48.



<표 7> 제주도 축제 기간별 현황

축제기간	축제수
8일이상	8
7일	3
6	1
5	1
4	2
3	15
2	19
1	10
합계	59

자료: 2007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07. pp. 158~162.

제 3 절 지역축제 관련 통계

일반시민이 얼마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축제경험 시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한 자료들이다.

문화관광부 통계포털에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 분석하였다.

1. 지역축제 참가의향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를 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가·문화·관광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얼마만큼 축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⁴⁷⁾

지역축제 참가 의향에 대해서 통계한 것을 보면 70%이상이 긍정적인 면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감수성이 강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관심을 보였고, 연령별에서는 호기심과 활동량이 많은 10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을

47) 창의한국. 문화관광부. 2004. p. 395



알 수 있다. 미성년자의 관심은 부모님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배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집안에만 있는 대부분이 주부들이 가장 축제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다음은 직장인들이었는데, 이러 현상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역동적인 삶을 원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로 인해 삶의 재충전을 함으로써 다시 일상생활에서 충실할 수 있는 여유와 집중이 형성 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지역축제에 가보지 못한 일반인들이 더 많으나 이러한 관광·여가 환경의 변화는 관광산업이 문화산업, 레저스포츠산업과 함께 축제를 이끌어 내기에 더욱더 다양화 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중시하는 관광객의 관심에 적극 부응하여 계층을 초월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본다.

<표 8> 지역축제 참가의향

구분		2003			
		사례수[명]	있다[백분율]	없다[백분율]	계[백분율]
전체		2,000.00	74.00	26.10	100.00
성별	남성	991.00	72.80	27.20	100.00
	여성	1,009.00	75.10	24.90	100.00
연령별	10대	206.00	79.10	20.90	100.00
	20대	437.00	79.90	20.10	100.00
	30대	457.00	76.10	23.90	100.00
	40대	383.00	71.80	28.20	100.00
	50대	405.00	65.90	34.10	100.00
	60세이상	112.00	68.80	31.30	100.00
도시규모	대도시	988.00	71.00	29.00	100.00
	중소도시	791.00	77.20	22.80	100.00
	군지역	221.00	75.60	24.40	100.00
학력별	중졸이상	426.00	72.50	27.50	100.00
	고졸	864.00	71.30	28.70	100.00
	대재이상	710.00	78.00	22.00	100.00



직업별	전문/관리직	86.00	82.60	17.40	100.00
	사무직	294.00	76.50	23.50	100.00
	서비스/판매직	382.00	73.00	27.00	100.00
	생산직	248.00	65.70	34.30	100.00
	자영업	136.00	68.40	31.60	100.00
	주부	437.00	73.00	27.00	100.00
	학생	351.00	80.30	19.70	100.00
	기타/무직	66.00	71.20	28.80	100.00
소득별	100만원이하	75.00	68.00	32.00	100.00
	101-150만원	182.00	67.00	33.00	100.00
	151-200만원	391.00	74.20	25.80	100.00
	201-300만원	690.00	75.10	24.90	100.00
	301만원이상	662.00	75.20	24.80	100.00
지역축제 관람경험	있다	807.00	91.80	8.20	100.00
	없다	1,193.00	61.90	38.10	100.0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지역축제참가의향-지역축제 참가의향

2. 지역축제 관람 실태

지역축제 관람실태는 거주지역과 거주지역외의 관람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된 것이다. 표를 보면 80%가 거주지역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고 있고, 거주지역외에서 지역축제를 관람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이 통계조사에서 보면 현시점에서는 외부 관광객들보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와 활동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40대가 관람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의 관람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축제의 관람은 경제·시간·건강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지역축제 관람 실태

응답자 특성별		2006		
		사례수[명]	거주시도[%]	거주시도 이외[%]
전체		1,290.00	86.40	20.50
성별	남성	634.00	86.10	22.10
	여성	656.00	86.70	19.10
연령별	10대	102.00	90.20	14.70
	20대	263.00	84.80	23.60
	30대	296.00	84.10	22.30
	40대	281.00	82.90	24.90
	50대	163.00	89.00	17.80
	60세 이상	185.00	93.50	12.40
도시규모	대도시	534.00	83.10	24.50
	중소도시	551.00	85.10	19.40
	군지역	205.00	98.50	13.20
학력	중졸이하	283.00	93.60	12.00
	고졸	535.00	85.80	18.70
	대재이상	472.00	82.80	27.80
직업	전문/관리직	40.00	80.00	30.00
	사무직	263.00	86.70	24.30
	서비스/판매직	176.00	75.00	29.50
	생산직	175.00	89.70	14.30
	자영업	65.00	95.40	15.40
	주부	315.00	87.60	17.10
	학생	181.00	88.40	21.00
	기타/무직	75.00	90.70	13.3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7.00	94.30	13.80
	100-199만원	282.00	90.40	14.50
	200-299만원	508.00	87.60	18.30
	300만원 이상	413.00	80.60	28.8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지역축제 관람 실태



3. 지역축제 보완점

지역축제의 보완점 통계에서 보면 지나친 상업성은 벗어나야한다는 응답이 평균 40%에 가깝게 가장 많았는데 하나의 축제는 장기간이 아니라 단시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자는 경제적인 성과를 필요 이상으로 올리려는 욕심은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지역 고유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래 관광객들은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으로 보고 느끼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보편화된 축제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좋은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모르는 경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편의시설 외에도 교통문제 해소까지도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표 10> 지역축제 보완점(1)

응답자 특성별		2006			
		사례수[명]	지나친 상업성 벗어나야[%]	지역 고유특성 살려야[%]	홍보를 많이 해야[%]
전체		1,290.00	37.10	19.70	18.80
성별	남성	634.00	35.50	21.60	19.70
	여성	656.00	38.60	17.80	18.00
연령별	10대	102.00	35.30	12.70	20.60
	20대	263.00	39.90	19.00	18.60
	30대	296.00	38.50	18.90	19.90
	40대	281.00	33.80	21.70	18.10
	50대	163.00	41.10	19.00	17.80
	60세 이상	185.00	33.00	23.20	18.40
도시규모	대도시	534.00	37.60	18.40	17.80
	중소도시	551.00	36.50	20.00	19.20
	군지역	205.00	37.10	22.40	20.50
학력	중졸이하	283.00	36.40	18.70	15.90
	고졸	535.00	38.70	18.30	18.10
	대재이상	472.00	35.60	21.80	21.40



직업	전문/관리직	40.00	30.00	25.00	12.50
	사무직	263.00	34.20	20.20	22.80
	서비스/판매직	176.00	40.30	18.80	17.00
	생산직	175.00	42.90	20.60	18.30
	자영업	65.00	40.00	13.80	16.90
	주부	315.00	37.50	19.40	18.10
	학생	181.00	33.10	17.70	21.00
	기타/무직	75.00	34.70	26.70	13.3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7.00	37.90	26.40	13.80
	100-199만원	282.00	38.70	17.70	19.10
	200-299만원	508.00	32.90	18.30	21.70
	300만원 이상	413.00	40.90	21.30	16.2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지역축제 보완점

<표 11> 지역축제 보완점(2)

응답자 특성별		2006			
		편의시설 늘려야[%]	교통불편 해소해야[%]	주민참여 높아져야[%]	무응답[%]
전체		11.20	7.40	5.10	0.40
성별	남성	10.70	7.30	4.60	0.30
	여성	11.70	7.60	5.60	0.50
연령별	10대	13.70	7.80	7.80	0.00
	20대	12.50	6.80	3.00	0.00
	30대	8.80	8.40	4.70	0.30
	40대	12.80	8.50	4.30	0.70
	50대	9.80	3.10	8.60	0.60
	60세 이상	10.80	8.60	5.40	0.50
도시규모	대도시	12.70	7.90	5.10	0.60
	중소도시	12.00	8.20	4.00	0.00
	군지역	5.40	4.40	8.30	1.00
학력	중졸이하	12.40	7.40	7.80	1.10
	고졸	11.80	7.30	5.40	0.20
	대재이상	10.00	7.60	3.20	0.20



직업	전문/관리직	15.00	12.50	5.00	0.00
	사무직	9.90	8.00	4.90	0.00
	서비스/판매직	11.40	6.30	5.70	0.60
	생산직	7.40	5.10	4.60	0.60
	자영업	10.80	10.80	6.20	1.50
	주부	12.70	7.60	4.40	0.30
	학생	12.20	8.80	6.10	0.00
	기타/무직	14.70	4.00	5.30	1.3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0	8.00	8.00	0.00
	100-199만원	10.30	6.70	6.70	0.40
	200-299만원	13.60	8.30	4.50	0.60
	300만원 이상	10.20	6.80	4.10	0.2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지역축제 보완점

4. 지역축제 참가 할 때 기준점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를 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여가·문화·관광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축제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된 시점에서 축제의 볼거리와 다양성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축제의 시설을 통한 그 주변 관광지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관광객들은 비용이 적절성과 교통편, 주변시설의 편리성 등, 보는 시야가 넓어져 축제 주최자는 축제의 단편적인 주제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획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신경을 써야한다.



<표 12> 지역축제에 가고자 할 때 기준점(1)

응답자 특성별		2006			
		교통의 편의성 [%]	주변시설 편리성 [%]	기타[%]	계[%]
전체		4.10	2.40	0.00	100.00
성별	남성	3.60	2.40	0.00	100.00
	여성	4.50	2.40	0.10	100.00
연령별	10대	3.40	2.80	0.00	100.00
	20대	4.20	1.90	0.00	100.00
	30대	3.90	3.30	0.00	100.00
	40대	3.50	1.50	0.20	100.00
	50대	1.90	1.90	0.00	100.00
	60세 이상	7.20	2.90	0.00	100.00
도시규모	대도시	4.10	2.10	0.00	100.00
	중소도시	4.00	3.00	0.10	100.00
	군지역	4.10	1.20	0.00	100.00
학력	중졸이하	5.70	1.90	0.20	100.00
	고졸	3.40	3.40	0.00	100.00
	대재이상	3.90	1.50	0.00	100.0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님께서 지역(거리)축제에 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표13>지역축제에 가고자 할 때 기준점(2)

응답자 특성별		2006			
		사례수[명]	불거리수준/ 다양성[%]	주변의 불거리 풍부[%]	비용의 적절성 [%]
전체		2,142.00	72.30	16.00	5.20
성별	남성	1,021.00	72.50	16.00	5.60
	여성	1,121.00	72.10	16.10	4.90
연령별	10대	177.00	74.60	15.30	4.00
	20대	427.00	74.50	15.90	3.50
	30대	511.00	74.20	13.50	5.10
	40대	456.00	73.70	16.40	4.60
	50대	265.00	71.30	18.90	6.00
	60세 이상	306.00	63.40	17.60	8.80



도시규모	대도시	999.00	74.00	15.40	4.40
	중소도시	900.00	69.00	17.20	6.70
	군지역	243.00	77.40	14.00	3.30
학력	중졸이하	476.00	68.70	16.20	7.40
	고졸	913.00	72.80	15.70	4.70
	대재이상	753.00	73.80	16.30	4.5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님께서 지역(거리)축제에 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5.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

축제를 개최할 때 시설문제나 환경만족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통계에서 보면 시설물이나 환경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편의시설이 특히 더 필요한 여성이 42%, 50대가 47%가 가장 많은 불만족으로 조사되었고,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의 문제점들이 들어났는데, 축제 프로그램의 주제나 목적, 행사내용이 잘 되어 있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편의 시설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그 축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산업디자인과 동시에 축제시설 디자인은 그 축제의 주제와 행사내용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일본포장산업의 발전은 일본 상품의 판매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축제 행사의 흥미와 다양성, 지역문화의 정체성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제의 목적 및 방법에 해당되는 상품개발과 판매촉진 그리고 주차 및 휴식부분까지 고려하고 개발해야 한다.

향후 주최측은 축제의 경제성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 공간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표 14>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1)

응답자 특성 별		2006			
		사례수[명]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보통[%]
전체		1,290.00	1.90	39.90	40.30
성별	남성	634.00	2.20	37.40	42.10
	여성	656.00	1.50	42.40	38.60
연령별	10대	102.00	0.00	40.20	40.20
	20대	263.00	1.10	37.30	39.90
	30대	296.00	2.40	37.80	41.90
	40대	281.00	0.70	37.00	42.00
	50대	163.00	1.80	47.20	35.60
	60세 이상	185.00	4.90	44.90	40.00
도시규모	대도시	534.00	1.10	38.00	43.60
	중소도시	551.00	2.20	39.40	37.90
	군지역	205.00	2.90	46.30	38.00
학력	중졸이하	283.00	4.20	44.90	38.20
	고졸	535.00	1.90	40.40	39.60
	대제이상	472.00	0.40	36.40	42.40
직업	전문/관리직	40.00	2.50	22.50	60.00
	사무직	263.00	1.90	38.40	38.80
	서비스/판매직	176.00	2.30	33.50	44.30
	생산직	175.00	1.70	45.70	36.00
	자영업	65.00	3.10	36.90	40.00
	주부	315.00	1.90	44.40	38.70
	학생	181.00	0.00	42.00	39.80
	기타/무직	75.00	4.00	34.70	44.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7.00	3.40	42.50	46.00
	100-199만원	282.00	1.80	38.70	40.80
	200-299만원	508.00	1.80	42.90	37.40
	300만원 이상	413.00	1.70	36.60	42.4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



<표15>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2)

응답자 특성별		2006			
		약간불만 [%]	매우불만 [%]	종합평가 만족 [%]	종합평가 보통 [%]
전체		16.20	1.70	41.80	40.30
성별	남성	15.90	2.40	39.60	42.10
	여성	16.50	1.10	43.90	38.60
연령별	10대	19.60	0.00	40.20	40.20
	20대	18.60	3.00	38.40	39.90
	30대	15.50	2.40	40.20	41.90
	40대	18.50	1.80	37.70	42.00
	50대	14.70	0.60	49.10	35.60
	60세 이상	9.70	0.50	49.70	40.00
도시규모	대도시	15.90	1.30	39.10	43.60
	중소도시	18.10	2.40	41.60	37.90
	군지역	11.70	1.00	49.30	38.00
학력	중졸이하	12.70	0.00	49.10	38.20
	고졸	17.00	1.10	42.20	39.60
	대재이상	17.40	3.40	36.90	42.40
직업	전문/관리직	15.00	0.00	25.00	60.00
	사무직	17.90	3.00	40.30	38.80
	서비스/판매직	17.00	2.80	35.80	44.30
	생산직	14.90	1.70	47.40	36.00
	자영업	16.90	3.10	40.00	40.00
	주부	14.60	0.30	46.30	38.70
	학생	17.10	1.10	42.00	39.8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00	0.00	46.00	46.00
	100-199만원	17.40	1.40	40.40	40.80
	200-299만원	15.70	2.20	44.70	37.40
	300만원 이상	17.70	1.70	38.30	42.40

자료 : 문화관광부 통계포털 2006/ 지역축제 시설 및 환경만족도



제 4절 지역축제 사례

1. 국외 지역축제

(1) 벨기에 뱅슈 카니발⁴⁸⁾

1) 소개

뱅슈 카니발의 기원은 1549년 오스트리아 제국 시절 헝가리의 왕비 마리(Marie de Hongrie)의 행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마리는 ‘뱅슈의 부인’이란 칭호를 들을 정도로 뱅슈를 좋아하여 기거하였는데, 1549년 8월 22일 마리의 오빠인 오스트리아(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찰스 5세(Charles Quint) 황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뱅슈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축제가 이후에는 카니발이 열리는 2월에 맞추어 재개봉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역 축제 동아리 같은 것이 18, 19세기에 도시내의 중상층에서 조직되어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2) 조직운영

뱅슈의 카니발은 지역주민의 조직들에 의해 운영되며, 대표적인 조직은 ‘질(Gilles)’이란 조직이다.

이 조직은 1795년 2월 11일 지방문서에 처음 언급되는데, 현재의 조직이 형성되는 것은 19세기이다. 현 조직은 도시 성벽안의 상공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며 카페나 바 등에서 모였고, 그 외에 성밖에는 농부 혹은 어부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있었다. 그러나 농촌조직들은 점차 소멸하고 현재에는 학생들에 의해 이전 복장만이 재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에서 관장하는 ‘국제 탈 박물관’에서도 카니발을 함께 운영하는데 시는 경찰력 및 도시계획부서를 통해서 축제 때 시의 치안 및 경비를 하고 홍보 활동도 시청 내부의 관광안내과에서 담당한다.

4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4호, 2000./ 신동일.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5. pp. 73~74



3) 개최 시기 및 장소

개최 시기는 전통적인 카니발의 날짜인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이고, 개최 장소는 벨기에의 뱅슈지방이다.

4) 행사 내용

대부분 1월부터 북치기와 행진의 예행연습이 벌어지고, 카니발 한 주일 전의 월요일 밤에는 ‘트루 드 누르(Trouilles de Nouilles)’라는 행사, 카니발 전 3주간 토요일 마다 대학생 그룹이 순서대로 무도회를 개최한다.

카니발 바로 전 일요일에는 미래의 ‘질’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복장을 하고 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카니발 바로 전날인 월요일 룬디 그라(Lundi Gras)는 젊은이의 날로 대학생그룹이 아침에 행사, 오후에는 어린이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한다. 마르디 그라 아침에는 새벽 5시부터 모자를 쓰지 않은 ‘질’들이 행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질’의 공식 행렬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질’의 그룹들은 절대로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질’은 뱅슈의 성곽 안에서 행사를 벌여야 ‘진짜 질’이 되는 것이지 홍보를 위해 외부로 다니는 일은 ‘가짜 질’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5) 시사점

뱅슈 카니발은 벨기에의 뱅슈(Binche)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전통 카니발로서 여기서 전통이라 함은 첫째로 전통적인 카니발의 날짜인 사순절 이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행해진다는 점, 두 번째는 주민과 상관없는 스펙타클이나 쇼무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축제라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 많은 카니발 행사가 관광 측면에 맞춰 전통과 상관없이 축제 날짜를 잡거나 혹은 아예 관광객이 많은 여름에 여는 편법운용을 하는데 반해 뱅슈는 관광 보다는 전통의 고수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니스나 비에라지오 카니발이 관광객을 위한 화려한 쇼를 기획하여 전문가들을 등장시킨 이벤트를 시에서 기획하는 데 반해, 뱅



슈축제는 카니발을 위한 전통 주민 단체가 매년 행사를 관장하고 이에 선정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민의 축제’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전통 재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집단의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여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관광에 주안점을 둔 행사가 아니라 주민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뱅슈의 카니발은 독자적인 민속성과 역사성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축제의 하나로서 카니발 하나로 인구 3만명의 조그만 벨기에의 도시가 세계에 알려졌다는 자부심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다.

(2) 아비뇽 축제⁴⁹⁾

1) 소개

아비뇽축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유명한 축제로서 1947년 9월에 연극배우이자 무대감독인 장 빌라르(Jean Vilar·1912~1971)가 ‘아비뇽에서 예술의 주간을’이라는 가치 아래 교황청 안마당에서 세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아비뇽축제를 창설한 빌라르의 의도는 당시 파리에서 공연되던 연극들과는 다른 형식의 연극을 통해서 젊은 관객들, 정열적이고 신선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었는데, 아비뇽축제는 시작 이래 지금까지 57년 동안 단지 4명의 책임자를 거치면서 성장해 올 만큼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 조직운영

1980년대 이래 아비뇽페스티벌은 유럽의 다른 모든 페스티벌 단체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축제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 지원단체들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재정 수입의 약 55%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다.

축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행정위원회는 재정후원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관련 문화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일년에 두세번 회의

4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74호, 2000./ 신동일.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5. pp. 75~77.



를 열어 축제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예산안 및 결산을 의결한다.

축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예술국장과 조직국장인데 이들은 모두 5년 임기로 행정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이 중 예술국장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축제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하여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통은 모든 기관들에 의해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다. 축제 조직인원은 평소에는 20명 내외의 직원이 상근하며, 파리와 아비뇽 본부로 나뉘어서 근무하지만 축제 개최기간에는 수백명의 아비뇽 시민들이 임시직 및 자원봉사의 형태로 고용된다.

3) 개최 시기 및 장소

개최 시기는 매년 7-8월경에 20여일간 개최되고, 축제의 주공연장은 교황청이지만, 그밖에도 성당, 수도원, 고등학교 운동장, 시립극장, 광장, 채석장의 빈터 등이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4) 행사 내용

아비뇽 축제는 ‘공공성 연극축제’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연극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연극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나 1964년부터는 그 영역을 뮤지컬, 무용, 현대음악 등 다른 예술분야에까지 넓혀 왔다. 몇 년 전부터는 시, 미술 및 연극사 전시회, 영화와 비디오아트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비뇽에서 가까운 도시들, 예컨대 오랑주(Orange)나 엑상 프로방스(Aix-en-Provence) 등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아비뇽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분야는 축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비평, 토론과 교육 프로그램이다. 축제본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날 공연될 작품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으며, 전문가들이 생루이 공간에 모여 작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5) 시사점

아비뇽축제에서는 행정기관은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축제 주최측에서는 축제가 시작되기 18개월 전부터 작품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치밀함을 보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함으로써 유럽 연극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도시를 위해서 클래식음악이나 오페라는 무대에 올리지 않는 점도 축제의 독창성과 차별성 유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중들의 높은 관람 수준은 관객의 수준이 공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축제 조직인원은 평소에는 소수이나,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아비뇽 시민 수 백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주민 참여도가 높다.

(3) 인도 콤브멜라⁵⁰⁾

1) 소개

가장 큰 규모의 힌두교 순례축제인 콤브멜라의 콤브는 ‘주전자, 항아리’의 뜻이며, 멜라는 ‘축제’ 또는 ‘시장’을 가리킨다. 아주 오랜 옛날, 힌두교 경전에 따르면 이들 장소는 신들과 악마들이 신비한 영약인 암리타가 들어 있는 주전자(Kumbh)를 차지하기 위해 12일간 싸우던 중 주전자에 흘린 생명수 암리타 네 방울이 갠지스강과 다른 강의 네 곳에 떨어졌다.

천상의 시간 12일간은 지상의 시간으로는 12년, 힌두교도들은 지상에 떨어진 생명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 4곳에서 3년마다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최고 성지알라 하바드에서 12년째 가장 큰 ‘마하’ 콤브멜라를 연다.

2) 조직운영

힌두교에서 주최하고 힌두교도들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인도 북부 갠지스 강변의 성지 ‘알라하바드’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갠지

50) 참고.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2005. pp. 44~45.



스강의 ‘강가’, ‘야무나’, ‘사라스와티’ 총 4곳에서 3년마다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최고 성지 ‘알라하바드’에서 12년째 42일간 가장 큰 ‘마하’ 콤브멜라를 연다.

4) 행사내용

축제기간 중 음력으로 계산되는 성스러운 기일에 강물에 몸을 담그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하여 신자들은 죄를 정화하기 위해 이들 강에서 목욕을 한다.

5) 시사점

인도 북부의 자그마한 도시 ‘알라하바드’의 갠지스 강변에 12년만에 열리는 ‘콤브멜라’를 위한 모래위에 세워진 40일간의 임시 도시 하나가 세워진다.

힌두교 최대의 축제인 ‘콤브멜라’를 찾는 7천만명의 순례자들을 위해, 1,200헥타르(약 여의도 면적의 4배)의 행사 장소에 조직위에서 준비한 텐트만 해도 30만개로 갠지스 강변 ‘알라하바드’는 사람들의 강으로 범람한다.

11억명의 인도인 중 힌두교는 약 9억명으로 그중 12년마다 열리는 이 축제의 순례를 꿈꿔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기네스북은 1989년의 ‘콤브멜라’를 1천 5백만명이 모인 인류 최대의 종교 집회라고 기록했으나, 그 기록은 2001년에 간단히 갱신됐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압사 사고 등 불상사도 종종 일어나 1820년에는 430명이 인파에 깔려 숨졌으며, 1954년에는 300여명이 질식사 했다.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리다 보니 안정성과 청결성이 부족하여 위험이 따르고 있는 축제로서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4) 독일 뮌헨 10월 맥주축제⁵¹⁾

1) 소 개

51) 참고.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2005. pp. 126~129.



독일에서는 여러 곳에서 맥주 축제가 열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매년 뮌헨에서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개최되는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tfest)’이다. 뮌헨 맥주축제의 기원은 1810년 10월 12일 당시 바이에른의 왕자 루트비히와 작센의 테레제공주와의 결혼 축하연에서 시작되었다.

축하연은 당시 뮌헨의 성문밖 목초지에서 시민을 다수 초대하여 열렸는데, 축하연이 열렸던 장소는 신부의 이름을 따서 ‘테레지엔비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독일어로 비제(wiese)라는 말은 목초지를 뜻하는데, 오늘날 맥주 축제를 개최지 주민들이 비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맥주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바로 그 당시 결혼 축하연이 열렸던 곳이다.

축하연이 끝날 무렵 왕실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승마대회가 열렸고, 바이에른 사람들이 이를 축하해 주었다. 다음 해에도 승마대회를 열자고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옥토버페스트’의 시초가 되었다.

처음에는 소박한 축제였으나 사람들이 점차 모이게 되자 1818년에 회전목마와 그네가 나타났고, 조그만 맥주매점들이 방문객의 인기를 끌게 되자 그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1896년부터는 양조회사들의 전쟁과 콜레라가 전염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되어 왔으며, 174회 맥주축제가 개최되었다.

2) 조직운영

맥주축제의 운영은 100년 이상 뮌헨시가 주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관광산업의 중요성으로 뮌헨시 산하기관인 관광사무소가 주관하고 있다.

관광사무소 축제팀의 중요한 업무는 행사장에 입주한 회사를 선정하고, 장소를 지정해주는 일이며, 나머지는 각 참여회사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회사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입주 신청서는 뮌헨 시의회의 무역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축제장소 선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검토 후 다음 해에 재조정한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옥토버페스트는 축제명칭으로 보면 10월중 개최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개막하여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폐막한다.

이는 축제기간 16일중 주말과 일요일이 각각 세 번째 포함되는 매우 이상적인 개최기간 선정 전략으로 한정된 기간에 휴일을 최대한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행사장은 뮌헨 시내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126만평에 뮌헨소재 6개 맥주회사를 비롯한 14개 맥주사의 대형 텐트를 설치해 운영한다.

4) 행사내용

식전행사로 맥주회사들이 화려하게 치장한 마차에 맥주통을 가득 싣고, 축제장으로 향하며, 맥주텐트의 악단과 함께 천여명이 참여하여 행사장으로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한다.

뮌헨시장이 행사장에서 나무망치로 맥주통 꼭지를 두들겨 넣어 마개를 따며 “마개가 열렸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 해에 처음 생산된 맥주를 높이 들어 마시는데, 이것이 옥토버페스트의 개막식이다. 금방 실어온 신선한 생맥주를 맛보며, 밴드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음악과 노래, 이야기 소리가 뒤섞여 흥겹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축제개막일에는 유럽 각국의 600여명 공연자들이 민속의상을 입고 음악, 노래, 무용으로 보여 주는 국제민속경연대회가 벌어지며, 다음날인 일요일에 고유 의상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7,00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전통복장과 민속음악, 댄스 등을 즐기면서 뮌헨 중심가를 통과하여 행사장까지 가는 7Km의 행렬로 장관을 연출한다. 두 번째 일요일은 바바리아상 앞에서 400여명의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야외콘서트 등의 공식행사가 열린다.

5) 시사점

독일의 국민적 음료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는 옥토버페스트는 매년 600~700만명이 방문객이 찾아온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공적인 요인으로는 지역의 특상품과 전통을 잘 살려 차별화했으며, 시의 축제



운영체계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석 할 수가 있다.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입주하려는 회사는 대개 약 1,500개 회사가 응모하여 이 중 700개사 정도가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만큼 회사의 참여도가 그 축제의 성공여부를 엿볼 수 있고, 회사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공정성을 발휘한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리고 큰 규모의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중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획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뮌헨 시 행정당국은 맥주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경비를 충당하고 약간의 이익만 남는 정도로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어 가능한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곧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적절한 방안을 내세운 면이다. 개최기간 16일 동안 650만 명이 방문하는 맥주 축제는 인근지역에도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다.

직접적 경제효과만 약 1,000억 원에 가깝고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이뤄내고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5) 이태리 베네치아카니발⁵²⁾

1) 소 개

베네치아카니발은 평소에 비참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당해 온 피지배층의 불만을 오락으로 통해서 터트릴 수 있도록 허용한 기회였다.

지배계급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명확했던 중세에 피지배층이 일 년 내내 엄격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기간으로, 축제를 통해 농노와 주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회적 계급이라는 장애물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느꼈던 행사이다.

베네치아카니발은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잠시나마 일탈하여 긴장을 해소하게 함으로써 법과 질서가 극단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카니발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지배계급은 카니발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방관하였다.

52) 참고.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2005. pp. 163~165.



카니발은 제한 받지 않는 즐거움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기간이고, 억압된 두려움과 불만을 해소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신분계급이 엄격한 사회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일탈에 빠져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이 축제에 이용되어 베네치아카니발을 ‘가면축제’ 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축제참가자들이 가면과 변장으로 자신을 숨김으로써 인간 의식이 내면을 숨김없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가면과 가장을 통해 억압된 꿈과 감춰진 열망으로 투영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2) 운영조직

축제운영조직도 과거에는 베네치아시에서 주관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베네치아카니발위원회’라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는 비영리 조직으로 25개의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 가는 위원장은 임기 3년의 선출직이고, 축제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축제기간 동안만 일하는 일시고용직으로 직원의 수는 20~30명 정도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2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계속되고 수상도시인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뤄진다.

4) 행사내용

베네치아카니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방문객의 흥미거리는 산마르코 광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가면패션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면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의상을 입은 수많은 참여자들이 산마르코 광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가면 의상을 한껏 뽐내고 방문객들을 위해 포즈를 취해준다.

축제 개최측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은 주로 산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진행



되지만, 카니발 기간 중 드레스코드를 갖춰야 입장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무도회도 열리는데, 비교적 높은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가면무도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연과 전통행사 및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병행된다. 그 외 마리축제, 전승기념행사, 광장축제, 다인종 카니발,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5) 시사점

베네치아카니발은 한동안 지역주민의 참여가 낮고, 방문객만 찾는 축제라는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베네치아카니발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축제 기간 동안 가면과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일반시민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네치아카니발의 가장 큰 스폰서는 독일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이지만, 자동차가 필요 없는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자동차 회사가 가장 큰 스폰서업체라는 것도 색다른 마케팅전략으로 볼 수 있다.

베네치아카니발 집행위원회는 가능하면 국가나 시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축제를 이끌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자립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축제를 통해 베네치아의 가면상점들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베네치아의 마스크는 유럽시장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줄이어 늘어선 수많은 마스크상점들마다 수백 가지 형태의 다양한 마스크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보트 퍼레이드는 중세 베니스공화국의 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색채의 배들이 나와 펼치는 수상 퍼레이드로 많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6)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⁵³⁾

53) 참고.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2005. pp. 291~296.



1) 소 개

세계 3대 공연축제로 1947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유럽 전역으로 감싸고 있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글린데본 오페라단의 행정관이던 루돌프 빙을 포함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재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온 아이디어로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는 유럽대륙에서도 호응을 받아 몇몇 도시에서 참가를 알려오기 시작하며 발전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에든버러축제는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고의 예술 축제로 기록된 바 있으며, 매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엄청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에든버러축제는 단일축제가 아니고, 독립된 여러 축제가 연결되어 국제축제, 프린지축제, 군악대축제, 영화축제, 민속축제, 어린이축제, 책축제, 과학축제, 등 20여종에 가까운 축제를 1년 연중 개최하면서 특히 8개의 축제가 몰려있는 축제왕국으로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특히 군악대축제는 에든버러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에든버러성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군악대, 전통무용단 등이 화려하게 이벤트를 펼치면서 수많은 외국 방문객과 영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에든버러는 세계 각처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몰려오는 유명한 전문 음악인, 연극인, 오페라 및 다른 여러 분야의 그룹들로 인해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2) 개최시기와 장소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에서 공연장 및 거리 그리고 에든버러성 등에서 매년 8월 열리면서 1년 연중 운영한다.

3) 행사내용

· 국제페스티벌

매년 약 650가지의 예술 문화 축제가 영국에서 열리는데, 이중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축제가 에든버러 국제축제이다.

이 축제에서 초청받는 공연단체는 축제 개최 측의 후원을 받아 무대에 작



품을 올린다.

에든버러 국제축제 개최측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이들 공연단체와 작품의 선정은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계적인 작품 수준이 되어야 한다. 에든버러 국제축제 무대에서는 클래식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 프린지축제

1947년 처음 열리던 국제축제에서 초청받지 않은 8명의 예술인들이 거리나 교회 등지에서 공연해 공식 축제 외곽지역에서 오히려 더 활발한 무대가 펼쳐져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라는 거리 예술축제가 형성되었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프린지축제는 자유참가의 형식을 띄우며, 영국인에게도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의 ‘난타’공연도 프린지축제에 “Cookin”의 공연명칭으로 1999년 참가했다.

프린지축제조직위원회는 출판과 티켓판매 그리고 공연자와 관중에서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순수민간단체로 축제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가 있고, 평소에는 운영위원장을 포함 8명이 근무하며, 축제 기간 중에는 5주에서 5개월까지 근무하는 임시직원이 50~100명까지 늘어난다.

- 에든버러군악제

매일 9천여명의 관객과 함께 22일간의 공연에 스코틀랜드 민속을 소재로 매년 20만명의 유료관람객이 함께 하는 에든버러군악제로 산위에 지은 에든버러성의 입구 큰 광장에서 펼쳐진다.

축제 시작 일년전부터 예매가 이루어져 3~4개월전에 예매가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수백명이 넘는 연주단이 전통 켈트 의상을 입고, 절도 있는 퍼레이드에 백파이프와 드럼을 연주하는 장관이 이루어진다.

에든버러군악제는 각 군의 시범부대, 낙타와 코끼리 및 기병부대 등 다양한 밴드와 군악대가 참여하며, 핵심 출연진은 스코틀랜드 사단의 보병부대다. 그 외에도 세계 30여개국의 군악대, 경찰, 민간인 공연자도 출연한다.

에든버러군악제가 유명한 축제가 된 이유는 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14명의 상설위원회가 분야별 역할을 담당해서 한 해의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로 다음 해의 프로그램은 준비할 정도로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한다는 점과 드라마틱한 공연 프로그램 구성이라 할 수 있다.



4) 시사점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시는 43만명의 소도시로서 지역축제 하나만으로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명관광지로의 부상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에든버러축제는 독립된 여러개의 축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여러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이고 철저한 프로그램과 기획을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이뤄내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그 지역만이 아닌 인근지역까지 파급효과를 내며 축제왕국으로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스코틀랜드 관광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9개의 주요축제가 매년 1,000억원의 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 국내 지역축제

(1) 금산 인삼축제⁵⁴⁾

1) 소 개

우리나라에서 인삼축제를 개최한 것은 일제시 인삼재배지로 유명하였던 개성시에서 서부공원에 인삼신사를 건립하고 매년 10월 상달 길일을 택하여 인삼업계 원로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올리고 제등시가행렬과 밤중의 폭죽행사들 거시적인 인삼제전을 거행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곳 금산지방에서도 개성과 같은 공개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인삼경작인 개인별로 삼장제라 하여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돌아오를 때면 인삼을 이 고장에 재배토록 하여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밭의 피해를 막아 인삼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제사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따라서 금산군에서는 이와 같은 삼장제를 현대적인 조화로 전승 군민 축제로 발전시키며 인삼 주산지로서 인삼의 본질과 효능을 규명하여 널리 선양하고 인삼 활용 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으로 소비를 창출, 군민 소득증대를

54) 자료 :http://www.geumsan.go.kr/festival/autumn_main.jsp



기함은 물론 이 고장 전통문화 행사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관내 유관기관 및 각계인사를 망라한 금산군 인삼선양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1981년 10월1일 ~ 2일까지(2일간) 제1회 금산인삼제를 개최하여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금산인삼축제는 금산인삼을 널리 선양하고, 금산이 인삼의 종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산업형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조직운영

금산인삼선양위원회가 주최하고 금산인삼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8월에 10일간 진행하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4) 행사내용

'인삼으로 당신의 건강을 설계하세요'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 축제는 아시아 최초로 '힘겨루기선수 국제연맹(IFSA) 세계 스트롱맨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고 체험 이벤트가 강화된 게 특징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남자를 선발하는 'IFSA 세계 스트롱맨대회'에선 세계 각 국에서 초청된 18명과 국내 예선을 통과한 6명 등 모두 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선보이게 된다.

또 인삼축제에는 개삼제(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산신제)와 전국인삼왕선발대회, 전국창작동요대회, 국제인삼약초요리경연대회, 전국라틴무브경연대회, 전국N세대축제, 전국마라톤대회 등이 마련된다.

이밖에 인삼 캐기 및 약초 썰기대회, 향주머니 만들기, 인삼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금산지역의 전통민속놀이 등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먹거리도 풍성해 행사장 주변에서 인삼어죽과 인삼강정, 인삼김치, 인삼제리, 홍삼엑기스 등 50여 가지의 인삼요리를 맛 볼 수 있다.

5) 시사점

금산인삼축제는 전형적인 산업형 축제로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잘 되어 있어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축제라 할 수 있다.

인삼유통센터와 주변 인삼제품 상가에서는 지역주민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축제의 주무대 프로그램과 보조를 맞추었다. 특히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수삼센터에서 인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산인삼축제로 인해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져 지역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축제 행사장 이외의 연계프로그램으로서 금산인삼약초여행, 인삼 캐기체험, 인삼병 제작체험, 인삼사우나 등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교통연계 서비스 미비로 관광객의 참여는 비교적 적었으므로, 연계프로그램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⁵⁵⁾

(2) 춘천 마임축제⁵⁶⁾

1) 소개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춘천마임축제는 몸, 움직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순수공연과 거리 축제와 난장이 결합된 축제성이 살아 숨 쉬는 아시아 최대의 마임축제이다.

그리고 마임의 집이라는 대한민국 유일의 마임 전용극장을 상설로 움직여 지속적인 마임으로 관람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으로 마임교실, 정보자료실, 마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조직운영

사단법인 춘천마임축제, 한국마임협의회, MBC춘천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주

55) 참고: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2005. pp. 135~141.

56) 자료 : <http://www.mimefestival.com/>



최하고 춘천마임축제 20년 기념 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5월에 10일간 개최하며 춘천고슴도치섬, 인형극장, 마음의 집, 봄내극장, 강원대학교 일원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4) 행사내용

크게 공연, 축제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외 기타 부대행사 및 체험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연은 공식초청작, 야외공연공모선정작, 아시아의 몸짓과 기획공연으로 다시 보고싶은 한국마임 외 등이 있다. 축제프로그램은 개막나장 아!수라장, 미친 금요일, 낮도깨비난장, 밤도깨비난장, 달콤한 도실장, 설치및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아티스트 베틀시장, 이외수의 무아지경 외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 지고, 학습프로그램으로 컨퍼런스, 신체극 워크숍과 교육프로그램으로 놀이마임 손, 천, 서커스 마당, 도깨비씨나라 되기 외 등이 있다.

기타 부대행사로 저글링강습, 마임워크샵과 체험활동으로 어린이 그리기놀이, 놀이마임, 과자만들기, 풍물배우기, 상송배우기, 불어배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5) 시사점

춘천마임축제는 공연예술을 주제로 한다는 점과 민간이 주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타 축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일반인들에게 강한 인지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말에 위도에서 진행된 도깨비 난장은 진정한 의미의 축제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마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⁵⁷⁾

57) 참고: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2005. pp. 105~110.



(3) 함평 나비대축제⁵⁸⁾

1) 소 개

전라남도 함평군은 자연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 확충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행사장 배치, 전통 꽃의 Green Tourism을 실현하여 정서적 이미지 고취, 청소년들에게 춘궁기 등 어려웠던 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 조성을 위해 나비대축제를 실시했다.

세계에서는 최초로 살아있는 나비·곤충과 자연을 소재로 새롭게 시도된 생태학습·환경축제로서 '99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8회째인 지역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축제기간 중 6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생태학습·관광축제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지역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생태를 체험하는 환경 친화적 축제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조직운영

함평군에서 주최하고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4월부터 시작해서 45일간 장기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읍 시가지, 수변공원(생태하천복원지)일원에서 이루어진다.

4) 행사내용

크게 체험행사와 전시행사 그리고 공연행사로 나뉘어진다.

체험행사는 나무곤충만들기 체험, 장승공예만들기 체험, 환경퀴즈 및 전통가죽 물이 체험, 미꾸라지 잡기 체험, 완두 거스름 체험, 전통민속놀이, 천연염색 체험 등이 있으며, 전시행사는 나비생태관 전시, 표본 전시관, 허브원예치료관, 토종생물 관찰 학습장, 반달가슴곰 전시장, 친환경 농업관, 노인작품 전

58) 자료: http://www.geumsan.go.kr/festival/autumn_main.jsp



사회, 나비·곤충 조형물 전시관, 전국사진 공모전 등이 있다.

그리고 공연행사는 남도도립국악단 초청공연, 고성오광대 놀이, 나비춤 공연, 가요열전, 어린이날 기념공연, 무대공연, 어버이날 기념공연, 호남경창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5) 시사점

함평나비축제는 산업형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축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2003년의 경우 입장료에서만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 경제적으로 성공한 축제였다.

따라서 함평나비축제는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1회성 소비 행사라는 사회적 비난을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사례에 해당하는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또한, 축제 컨셉에 친환경, 청정농산물, 교육적 체험 등 현대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관광 매력성을 높인 점도 이 축제가 단시일 내에 비교적 성공한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함평나비축제는 피폐해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여 패배주의를 극복하게 하였으며, 낙후된 농촌의 현실을 오히려 잘 응용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축제였다고 할 수 있었다.

즉, 농산물 판매만이 유일한 소득원으로 인식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는 점은 함평나비축제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었다.⁵⁹⁾

(4) 보령 머드축제⁶⁰⁾

1) 소개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로 성공한 “보령머드 화장품”과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한 지역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98년 7월에 처음으로

59) 참고: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pp. 75~83.

60) 자료: <http://www.mudfestival.or.kr/>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로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청정갯벌에서 진흙을 채취하여 각종 불순물로 제거하는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머드분말을 이용한 머드마사지와 머드체험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머드체험행사는 대형머드탕 등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이 빛어 놓은 듯한 환상의 섬 외연도를 비롯한 78개의 크고 작은 섬과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한여름에도 오싹한 냉풍욕장, 석탄박물관, 국보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45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어 연계관광으로 “문화관광보령”을 알리고 보령머드화장품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다.

2) 조직운영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7월에 7일간 운영이 되고 있고,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4) 행사내용

크게 체험행사, 본행사, 기획전시, 연계행사로 구분 할 수 있다.

체험행사는 대형머드탕, 머드터키탕, 머드비누만들기, 머드교도소, 머드첼린지, 머드씨름장, 머드슈퍼슬라이더, 머드핸드프린팅, 머드도자기체험, 머드인간마네징, 머드장애물 대형머드체험탕, 머드타잔놀이, 머드페밀리탕, 머드슈퍼장애물, 천연머드염색체험, 큐피트의 머드물총, 머드바르고카약타기, 머드셀프마사지, 해변머드풋살대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본 행사장에서는 갯벌극기체험, 갯벌스키체험, 제5회 보령갯벌(장애물)마라톤대회 갯벌체험장 (해안도로), 첨단머드마사지(머드 및 해수탕 체험(유료), 머드체험관이 진행된다.



기획전시 행사는 관광보령 홍보관, 물사랑 체험관, 무료건강 체험관, 머드 화장품전시 판매, 축제 캐릭터 상품 전시판매, 관광교통정보센터, 보령특산물 전시 판매, 벼루제작시연 및 전시판매, 머드축제 공모사진 전시, 관광보령사진 전시, 보령머드 홍보관 머드 체험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계행사로 제10회 보령머드축제 전국사진 공모전, 머드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머드 캐릭터 이름표 달아주기, 머드미인과 함께 하는 우리가락, 거리퍼포먼스(캐릭터 인형)운영, KBS와 함께하는 머드축제기행, 웰컴투 코리아(연예인)팬싸인회, 국내 유명 연예인 초청, 축제체험여행수기 응모, 자매도시 날 운영/분행사장, 관광객과 함께하기(머드댄싱 팀), 머드예술단운영, 머드축제 기차여행 (용산 ↔ 대전) /관광열차, 머드화장품수출상담회, 국제축제 및 이벤트 협회(IFEA)아시아 포럼, 보령머드세계학술세미나, 제8회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 요트 퍼레이드, 거리퍼레이드, 주한대사 및 가족 머드체험캠프, KBS 열린 음악회, 관광지순환이벤트,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 생방송, 축제 UCC 동영상 캠페인 등을 연계 행사로 운영하고 있다.

야간행사로 개막식, 머드왕선발, 축하공연, 불꽃판타지, 한 여름밤의 머드콘서트, 세계문화공연한마당, 클래식의 밤, 해변국악공연, 머드미스터선발대회, 머드B-BOY퍼포먼스, 머드외국인가요제, 보령머드대학가요제, 불꽃판타지 등이 진행되고 있다.

5) 시사점

보령머드축제는 머드라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화 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제고 및 관광객 유인차원에서 큰 성과를 이룬 축제로 평가 할 수 있다.

그간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축제의 인지도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향후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냉정한 모니터링과 함께 축제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입장료의 징수는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이 축제 프로그램에 투자되었을 때 축제의 격이 제고되고, 고객의 만족도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5)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⁶¹⁾

1) 소 개

안동지역은 시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문화들이 온전히 전승되어 온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이기도 하며, 동시에 동양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유형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도 많아 남성대동놀이인 차전놀이, 여성대동놀이인 놋다리밟기, 화전싸움, 저전논메기소리, 내방가사, 행상소리 등 다양하게 전승된다.

안동지역에 이렇게 풍부한 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것은 안동이 가진 가치 지향적 철학에서 기인한다. 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문화 수용과 계발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동양의 모든 문화가 안동에 유입되었고 유입된 이후 안동만의 가치관으로 재편성되어 꽃을 피운 것이다. 따라서 안동문화는 동양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운데 안동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지향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배경으로 1997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태어나게 되었다. 문화유산의 가치 속에서 정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배우고, 탈춤이 가진 신명을 통해 동적인 발산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탈춤축제는 안동문화를 답사하는 것과, 축제의 신명을 함께하는 것이 태극처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2) 조직운영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61) 자료: <http://www.maskdance.com/>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9월에 10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시내와 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행사내용

크게 메인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및 부대행사로 구분된다.

메인행사에서 한국공연은 하회별신굿탈놀이, 은율탈춤, 통영오광대, 예천청단놀이, 북청사자놀이, 취발이, 고성오광대, 강릉관노, 가산오광대, 양주별산대, 봉산탈춤, 송과산대놀이, 강령탈춤 등이 있고, 외국공연으로 부탄 왕립공연예술단, 태국 국립대학예술단, 대만 국립경극단, 러시아 민속무용단, 인도 전통민속무용단, 말레이시아 민속무용단, 폴란드 학생민속예술단, 일본 2개현 4개 민속공연단, 라트비아 민속무용단, 터키 앙카라대학민속무용단 외 케냐, 호주, 남아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수단 등의 다채로운 외국팀의 공연이 선사된다. 체험행사는 탈춤배우기, 나의 탈 나의 마스크 경연, 엽기탈댄스경연, 민속놀이체험, 전통복식시착체험, 천연염색, 한지공예, 탈체험, 연체험, 도예체험, 탁본체험, 과학체험, 안동포짜기, 석화공예, 장승깎기, 페인팅, 종이인형, 풍선공예, 안동참마체험행사 등 전통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행사는 세계탈 특별전시, 한지작품전시, 창작탈전시, 문중유물특별전시, 고려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관광기념품전시, 인형 및 공예작품전, 탈춤그림전, 경북과학축전, 수석전시, 분재전시, 우표전시, 연꽃사진전시, 유교문화사진전, 캐릭터전 등 전시되고 있고, 공연행사로는 저전논메기, 헌다례, 전통혼례, 풍물마당, 선유줄불놀이, 윤기명국악단, 여성풍물, 차전놀이, 퇴계무용단, 플룻양상블, 마임, 요들송공연, 클래식기타공연, 포크동요공연, MBC합창단공연, 락공연, YWCA합창단공연, 타악페스티벌, 도립국악단공연, 안동청소년국악공연, 금난새오케스트라공연, 탈댄스공연, 인형들의 합창 등이 선보이고 있다.

그 밖에 부대행사로 경북패션이노베이션, 안동의날, 전국민물낚시대회, 경북환경노래부르기경연대회, 전국디카·폰카콘테스트, 경북관광사진전, 경북광



고물전시, 경북과학축전, 우표전시, 탈춤그리기전시, 유교문화사진전, 학술행사(안동탈춤페스티벌의 법인화 및 활성화방안), 전국탈춤그리기대회, 탈놀이경연대회, 도산별시, 풍물경연대회, 정부인안동장씨추모 여성회호대회, 경전암송대회, 짚풀공예경연대회, 길놀이, 성황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5) 시사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여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축제일뿐만 아니라 축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축제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축제이다.⁶²⁾

전통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어 특히 외국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국 공연팀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전통적인 면을 극대화하여 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세심함 배려가 필요하겠다.

(6) 충주 세계무술축제⁶³⁾

1) 소 개

충주는 찬란했던 중원문화의 중심지이며, 한반도의 중심으로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6인 택견을 기반으로 개최되는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통해 무술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32개국 35팀의 수준 높은 국내 외 무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축제이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택견의 세계화 및 한국의 브랜드로 이미지화하여 전통무예의 확산 보급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신명나는 참여를 통해 일체감 조성 및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자긍심 고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62) 참고: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pp. 142~150.

63) 자료: <http://www.martialarts.or.kr/>



2) 조직운영

충주시가 주최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10월에 7일간 운영하고 유엔평화공원(구 탄금대 침금관광지)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4) 행사내용

크게 체험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특별행사로 구분된다.

체험행사는 무술배워보기, 웰빙체험 코너로는 사상체질 측정, 신체나이측정, 기문화체험, 단전호흡, 요가, 수지침, 창포체험, 기치료, 스포츠마사지와 무술체험 코너로 무과체험, 승마체험, 화승총쏘기, 군장체험, 전통체험코너로는 도자기만들기, 천연염색, 한지뜨기, 가야금 연주, 나도 서예가가 있고, 즉석체험 코너로 페이스페인팅, 봉숭아물들이기, 즉석사진촬영, 열쇠고리제작, 초상화그리기 등이 있다.

전시행사로는 고구려유물특별전시행사, 향토음식전시회, 미용창작작품전시회 전시되고 있고, 공연행사로는 세계무술시연, 세계민속공연, 정동예술단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국악공연, 가요공연, 무용공연, 헤어쇼, 사물놀이 공연, 댄스공연, 락페스티벌 등이 선보이고 있다.

특별행사로 이종격투기대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택견대회, 전국쌍절곤대회, 전국실전도법베기대회, 무술영화상영, 영화배우팬싸인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5) 시사점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는 각 나라별 전통 무술시연을 비롯하여 요즘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구려의 유물특별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 웰빙체험코너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이종격투기 실전경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행사, 각종 문화행



사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제주 지역축제

(1) 정월대보름들불축제⁶⁴⁾

1) 소 개

1997년도부터 개최되어온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새해 첫 대보름날을 맞아 새별오름 10만평의 드넓은 목야지에 큰 불을 놓아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속에 무한한 행복과 복을 염원하는 제주 시의 향토민속축제이다.

일찌기 목축업이 성행했던 제주에는 주민들의 생업수단으로 목야지에 불을 놓는 화입(방애)이란 풍속이 있었다. 화입을 하고 나면 목야지가 깨끗해지고, 진드기등 병충해가 없어질 뿐 아니라 불탄 잡풀은 재가 되어 그해의 목초를 연하고, 부드럽고, 맛을 좋게 해 소와 말들을 살찌운다.

이처럼 목축의 번성을 위해 행 해졌던 풍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관광 이벤트화 한 것이 정월대보름들불축제이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넓은 목야지에 불을 놓아 불바다의 대장관을 연출하는 것이다. 종전보다 폭죽 불꽃쇼를 최대한 줄이고, 화산이 촉발하는 형태의 오름 불농기 연출과 함께 오름 타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관광객들에게 들불축제의 장엄함을 만끽하도록 함으로써 그 감동을 극대화 하였다.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부싯돌 불씨만들기, 달집 태우기, 불깡통 돌리기를 비롯하여 전통혼례와 풍물놀이, 전통민요한마당, 집줄농기, 영감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줄다리기, 풍년기원제와 제주조랑말 투마대회, 돼지.오리몰이 경주, 썰날리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사진콘테스트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향토 음식점과 특산물 판매코너를 비롯해 구워먹기 마당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64) 자료: <http://www.buriburi.go.kr>



이 축제는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국제 자매도시가 함께하는 축제로 상호도시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으로 해왔고, 특별자치도 통합시대를 맞이하는 전국 21개 자치단체와 3개국 51개 도시에서 축하공연단 및 축하사절단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입지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섬으로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화합과 상생의 축제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 2회, 예비축제 3회 유망축제 2회 등 지정되었다.

2) 조직 운영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축제로서 지방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새해 첫 대보름날을 맞아 새별오름 10만평의 드넓은 목야지에 큰 불을 놓아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속에 무한한 행복과 복을 염원하는 제주시의 향토민속 축제이다.

4) 행사내용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3일 동안 ‘한마당’, ‘두마당’, ‘세마당’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진다.

한마당은 풍년기원제, 열창 다함께 차차차,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풍물기르기, 도립예술단 축하공연 개막축하 메시지 전달, 너비벌퍼포먼스(불의노래), 성화점화, 개막선언, 제주여성난타공연, 무사안녕기원 범패작법, 달집만들기 경연, 소원기원 횃불 대행진, 달집태우기, 태고의 불꽃쇼(조명 및 레이저쇼, 연화연출)이루어지고,

두마당은 태권무 공연, 어린이사물놀이, 청소년한마당축제(제주어말하기공연 병행), 집줄농기경연, 집줄넘기체험,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마상마예공연, 북춤공연, 국제자매도시축하공연, 국내자매도시 축하공연, 행복기원의 불꽃



쇼(조명, 레이저쇼, 연화)이루어 진다.

세마당은 민속예술공연, 듬들들기, 제주동물가족 행복나들이, 읍면동 대항 녉등베기대회, 마상.마예공연, 민속노래자랑, 국내자매도시 축하공연, 국제자매도시 축하공연, 민요한마당, 도립예술단 축하공연, 화고 난타, 축하메시지 낭독, 햇불 점화, 소원기원 메시지 낭독, 대형달집점화, 오름정상화산분출쇼, 오름불농기, 쥐불놀이 체험, 오름정상 연화연출, 조명 및 레이저쇼, 휘날레 장식(풍물놀이, 민요한마당, 강강술래) 등 절정에 일면서 막으로 내린다.

그 밖에 부대 행사로 오름생태체험, 축제사진 전국콘테스트, 어린이입체영화관운영, 연날리기시연, 가훈써주기, 잔디썰매장 운영, 조랑말 타기체험, 사랑의 역마차 운영, 소원기원 돌담쌓기, 행사장 의료진 운영, 활쏘기 체험장, 팔죽 끊여주기, 감귤캐릭터포토존, 세계다문화 체험코너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5) 시사점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오름이라는 장소와 한국 전통 풍속인正月대보름 날을 잘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 중 말사랑 싸움은 큰 인기를 끄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나아가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제주축제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3일간 69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렸고, 7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0억원의 지역소득 증대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세계축제로 나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해 행사를 치루면서 관광객이 발길이 많아지는 좋은 형상을 이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축제에 비해 점유율이 낮아 더 많은 홍보와 기획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교통의 문제는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축제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한 곳밖에 없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고 전혀 건물이 없는 장소에서 축제를 운영하다보니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본다.



(2) 제주왕벚꽃축제⁶⁵⁾

1) 소 개

화려한 왕벚꽃과 함께 새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제주봄 대축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벚꽃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제주이다.

따뜻한 남국 제주도에 하얗게 피어난, 벚꽃 중에서도 꽃잎이 크고 아름다운 제주 자생종인 왕벚꽃을 보며 겨울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잊고 봄의 정취에 마음껏 젖어 드는 것도 제주관광의 한 묘미가 되고 있다.

제주의 왕벚꽃은 서귀포 시내와 중산간도로, 종합경기장 등 도내전역에서 볼 수 있다. 왕벚꽃은 화사하고 탐스럽다. 더디 피지 않고 2~3일 사이에 확 피어난다. 제주시 전농로거리를 비롯해 광령리 무수천에서 항몽유적지 사이의 거리, 제주대학교 진입로가 벚꽃길로 인기가 높다.

보통 3월말에서 4월초까지 벚꽃 구경이 가능하지만, 제주 한라산 중턱의 산간도로는 4월 둘째주까지도 벚꽃을 볼 수 있다.

2) 조직운영

제주시가 주최하고 왕벚꽃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주 행사를 치루고 있고 시내 벚꽃길에서 전시회 등 부대행사를 치루고 있다. 3일 동안 축제가 열린다.

4) 행사내용

왕벚꽃축제는 왕벚꽃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왕벚꽃 테마관, 왕벚꽃 설치미술, 왕벚꽃 단지 산책로 확충, 왕벚나무 자생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또 연예인 초청공연 등 일률적인 개막축하공연에서 탈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꾸며졌다. 추자 굴비, 삼치 등 지역특산

65) 자료: <http://culture.jeju.go.kr/contents/>



품을 활용한 향토음식점을 다양하게 개설한다.

첫날은 도립민속예술단 공연, 율동댄스, 난타 공연과 불꽃놀이가 제주 봄밤의 아름다움을 수놓는다.

둘째날은 캔 조형물을 활용한 환경미술 실기대회, 캔 모으기 경진대회를 비롯 왕벚꽃 학생 휘호대회, 퓨전 무용, 퓨전타악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등 젊음의 축제로 꾸며진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도심지 왕벚꽃길을 알리기 위한 왕벚꽃길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왕벚나무 자생지 탐방,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부르기, 마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5) 시사점

도시 중심지 중 한 곳인 제주 종합경기장을 주 행사장으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축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서 많은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공연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친숙함과 편안한 장터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골장터 분위기에서 벗어나 축제다운 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격에 비해 음식은 부족해 보이고 잡상인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아 어수선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전체적인 축제 디자인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체계화 되어 보이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한다.

(3) 제주유채꽃잔치⁶⁶⁾

1) 소개

봄이 오면 제주도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 한데 어우러져 피어있는 유채꽃은 보는 이마다 감탄사를 유발할 만큼 장관을 이룬다.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기 위해 마련된 유채꽃잔치는 26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66) 자료: <http://www.70ni.com/>



제주의 푸른바다, 길옆의 돌담 그리고 노란 유채꽃의 세 가지 색이 어우러져 연인에게는 사랑을, 가족들에게는 꿈을 주는 축제가 될 것이다.

2) 조직운영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 관광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우도면 일대와 중문 컨벤션 앞 유채밭, 정석항공 유채꽃길 등에서 이루어지고 월드컵 경기장 옆 유채꽃 단지 등에서 축제가 열린다. 3월 말에 3일간 행사를 하고 있다.

4) 행사내용

첫째날은 풍년기원제, 느영나영한마당, 예술의 향기, 참여 및 체험마당이 이루어지고, 둘째날은 신명 그리고 울림 해피서귀포, 개막식, 개막공연, 국제걷기대회, 예지인 한마당, 외국인 제주어 말하기, 거리공연 등이 이루어진다. 셋째날은 찾아가는 노란 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어린이 사생대회, 길거리 과학체험, 걷기대회 등이 이루어지며 무대행사로 원담 고기잡이 체험, 해녀 잠수체험, 봉침맞기 및 벌꿀시식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5) 시사점

제주유채꽃 축제는 제주 자연 친화적인 축제로서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풍경이 있는 축제이다. 자연스럽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즐길 수 있고 마음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이다.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행사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고 꽃이 피는 시점도 달라 축제의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무대행사로서의 볼거리는 미흡함이 보였다.



(4) 서귀포칠선녀축제⁶⁷⁾

1) 소 개

전설과 신비 그리고 꿈의 대향연 별빛 영롱한 밤이면 천상의 선녀들이 옥 피리를 불며 내려와 천제연의 맑은 물에 미역을 감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소재로 치러지는 문화관광축제.

천혜의 자연절경과 수려한 풍광을 끼고 신비스러운 전설과 새봄의 향연이 어우러져 개최되는 이 축제는 칠선녀제, 칠선무공연, 장기대회, 사투리경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짝수년에는 축제를 하고 홀수년에는 제봉행으로 이뤄진다.

2) 조직운영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칠선녀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5월달부터 시작하여 약 3일간 축제를 운영한다. 장소는 서귀포시 중문천제연폭포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4) 행사내용

길놀이 및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개막식하고 칠선녀제, 서귀포시립합창단 축하공연, 특별공연(송승환 난타), 제주도립예술단 공연, 불꽃놀이, 칠선녀 명화극장, 제주전통민속공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칠선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의 퍼포먼스는 칠선녀가 천지연폭포수 위로 하강함으로써 신비감을 연출한다.

5) 시사점

이 축제의 큰 주제인 칠선녀 하강과 상승장면의 퍼포먼스는 폭포수 위에

67) 자료:<http://www.70ni.com/>



설치된 수상무대에서 연출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로 시가행진도 성공적이어서 서귀포시 전체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축제의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 주제와 상관없는 다양한 행사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와 연계한 행사도 보완되어야 한다.

(5) 도새기축제⁶⁸⁾

1) 소 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정제주만의 독특한 특산물로 도새기가 있다. 제주 양돈산업 발전과 관광먹거리 조성, 청정 제주 돼지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마련된 축제로 올해에는 더욱 풍성한 이벤트로 특화 관광 상품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 도새기 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2) 조직운영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가 주최하고 JIBS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5월에 2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제주경마공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

4) 행사내용

도새기 축제장에 가면 구이, 바비큐, 돈까스, 순대, 족발, 볶음 등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하고 기발한 퓨전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의 칼 솜씨를 사랑하는 '도감대회'는 삶은 돼지고기를 누가 보기 좋게 빨리 잘 썰는가를 가려 시상하며 즉석에서 맛도 볼 수 있다.

돼지 오줌보로 축구경기를 하는 '도새기월드컵'은 어릴적 공이 없어 돼지

68)자료: <http://porkfestival.net/>



오줌보로 공차기 놀이는 했던 성인들에게 향수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목표지점까지 몰아가 우승자를 가리는 '돼지몰이'와 행사장에 임시 마련되어 있다.

예쁜돼지 선발대회'는 누가 돼지를 더 아름답고 품나게 꾸미는가를 겨루는 행사로 다양한 의상과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치장한 돼지의 변신을 눈요기 할 수 있다. 또 새끼돼지가 어미돼지까지 자라는 성장과정과 출산과정도 볼 수 있고 귀여운 새끼돼지와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찰흙으로 돼지를 빚는 찰흙공예체험장도 마련되어 있다. 개막일에는 신명나는 풍물놀이와 인기가수 축하쇼, 타악 퍼포먼스, 양돈인 노래자랑 등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지고 도내 5개 육가공업체가 참가자들에게 돼지고기를 30% 할인 판매한다. 69)

5) 시사점

제주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인 돼지를 주제로 하는 이 축제는 체험과 시식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르고 있고, 또한 2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제주양돈협동조합이 책임을 지고 있어 부담감이 큰 축제로 행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 현재 쇠고기 수입으로 혼란에 빠진 시기에 제주도의 도새기축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로 도새기축제가 제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음식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돼지고기 판매를 증가시키며 관광객 유치에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6) 한여름밤의 해변축제70)

1) 소 개

69) 고승익의 축제 이야기29제주축제탐방(26)제주황금도새기축제. 제민일보.2007

70) 자료: <http://culture.jeju.go.kr/contents/>



1994년 시작된 한 여름밤의 해변축제는 제주시가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려고 탐동 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축제로, 7월 하순부터 3주 동안 날마다 무대에 올리는 공연 중심으로 짜여졌다. 예술 축제. 음악, 무용, 풍물공연,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약 한달 간 이어진다.

공연 참가팀도 도내 30여팀 뿐만 아니라 도외 10여팀 등 40여팀에서 1천여명이 참가,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공연한다. 공연이 시작되는 오후 8시가 되면 해변공연장 야외 계단식 관람석은 가족단위로 찾는 관람객에서부터 지나다 들르는 '뜨내기' 관객까지 하루 평균 2천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룬다.

탐동 해변을 따라 늘어선 다양한 먹거리 음식점과 대형 할인마트, 제주항 서방과제와 연계된 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돼 공연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축제장 주변에서는 거리의 화가, 사진전, 시화전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 조직운영

제주시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과 그 주변에 산책로, 공원에서 행사가 열리고 매년 7월 20일간 제주도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4) 행사내용

제주도는 밤에 관광할만한 곳이 없다고 하지만 7월 여름에 여름밤의 해변 축제는 관광객의 열정을 녹일 만큼 다채로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을 비롯하여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모든 문화예술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다.



5) 시사점

이 축제에서 공연하는 전문팀과 아마추어팀들이 적절히 배합하여 시간에 따라 감상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공연이 많아 관객의 호응도가 좋았고 제주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전통적인 공연이 조금은 미흡함이 있어 아쉬움이 보이는 행사였고, 장기간의 행사에 비해 예산이 적은 관계로 부대시설이 적은 편이다.

(7) 성산일출제⁷¹⁾

1) 소개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새천년, 빛, 평화의 소리'를 주제로 매해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성산 일출봉을 중심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성산포 일출봉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광경은 제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행사는 일출 시간에 맞추어 해맞이와 공연, 참가자들의 소망을 기록하는 소망의 시간 순서로 진행된다.

새해 첫날 맞이하는 일출제는 성대한 전야제와 함께 시작되고 밤새 다양한 행사로 일출을 기다린다. 평화의 섬 제주도(濟州島) 성산에서 치러지는 일출제에 도민과 전국의 관광객 찾아오고 있다.

신이 빚어 놓은 듯 한 성산일출봉의 일출은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장엄하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희망의 불덩이가 관광객의 눈을 통해 온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 정열을 유지하게 하고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희망찬 새해의 기원과 소망을 비는 행사로 장엄한 일출 광경과 더불어 제주 관광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 할 것이다.

2) 조직운영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성산일출제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로서 지역 청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71) 자료: <http://www.70ni.com/>



3) 개최시기 및 장소

성산일출봉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행사를 치루고 있고, 매년 마지막날에 시작하여 3일간 운영하고 있다.

4) 행사내용

첫째날은 걸궁패, 관악대, 취타대 등 선두주자로 거리행렬을 시작으로 개막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송년제(1부), 송년가요제(2부), 세계자연유산 축하 한마당 세계자연유산 영상물 및 축하공연과 설렘의 시간을 주제로 신년 메세지 낭독으로 새해맞이 해맞이 카운트다운 및 불꽃쇼 한다.

둘째날은 희망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일출기원제, 새해소망 기원제에서 금줄커팅 후 일출봉 등정, 해맞이 일출봉 정상에서 일출관람하고 세시놀이경연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등 행사가 이루어진다. 제주어경연은 도내 초등학교 제주어 놀이마당, 잠수굿 및 유등놀이 하고, 일출관악제는 도내 고등학교 관악연주 및 청소년 패스티벌 공연이 이루어진다.

셋째날은 화합 한마당의 주제로 풍물패 한마당 읍면동별 풍물패 경연, 장작웃놀이, 일출 씨름왕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실버 공연은 읍면동 노인대학 장기자랑, 혼인지 설화극, 지역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새희망 난타 공연으로 폐막선언 및 불꽃쇼로 마무리 한다.

5) 시사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산일출제는 희망찬 새해의 기원과 소망을 비는 행사로 장엄한 일출 광경과 더불어 제주 관광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있다.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 축제에서 다양한 학술제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존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여러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연파괴를 사전에 잘 막아 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축제이다.



(8) 제주마라톤축제⁷²⁾

1) 소 개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에서 체험할 수 없는 산과 바다와 섬이 함께 어우러진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마라톤 대회로 상쾌한 바닷바람과 바다 내음을 맡으며 달리다 보면 이마에 영그는 땀방울과 함께 제주의 색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제주의 대표적인 목적형 체험관광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 마라톤 매니아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스포츠 레저 축제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 조직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축제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6월달에 구좌 생활체육공원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코스를 잡고 있다.

4) 행사내용

마라톤 축제는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코스는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선한 바다 공기를 느끼며 할 수 있고, 그 외 부대 행사로 스포츠 용품할인 매장 등을 접할 수 있다.

5) 시사점

단 하루의 축제를 여는 행사지만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지역특산물 할인 매장, 지역향토음식점, 스포츠 할인매장

72) 자료: <http://www.jejumarathon.com/>



등으로 지역경제의 이바지를 했고, 참가자들에게 소라죽이라는 향토음식을 제공하므로 제주도의 따뜻한 인심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문화와 관광을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여러 부대 행사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경기 운영면에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더 세심하게 배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9) 이중섭예술제⁷³⁾

1) 소 개

불같은 예술혼을 사르다 4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화가 이중섭(1916~1956)을 기리는 문화예술축제.

이중섭 화가는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잘 조화된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한국근대미술의 여명기를 연 인물로서 암울한 시대와 불우한 환경, 비극적 삶 속에서도 한국미술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중섭은 서귀포에서 1951년 1월부터 12월까지 머무르면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이중섭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마다 9, 10월이면 그의 사망주기를 맞아 이중섭 화가의 예술혼을 기리는 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2) 조직운영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예총서귀포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굵은 획을 그은 천재화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이중섭예술제가 9월 중 4일간 전국 최초로 화가 이름을 거리명으로 명명한 이중섭거리와 이중섭 거주지 일대에서 열린다.

73) 자료: <http://culture.jeju.go.kr/contents/>



4) 행사내용

예술제는 이중섭미술관 일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승무공연과 축시 낭송 등으로 구성된 공연이 열린다. 그리고 이중섭을 소재로 한 학생미술실기대회 및 문학백일장이 개최되고, 이중섭과 서귀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둘쨌날 거리공연 락 공연과 시민한마당잔치가 마련되며, 셋째날에는 이연심(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의 태평무 공연 등으로 이뤄진 축하공연이 이중섭미술관 일원에서 열린다.

예술제 마지막날은 백일장 및 미술실기대회 시상식과 함께 제주민요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축하공연을 끝으로 예술제의 막이 내려진다.

이중섭 예술제 시즌에 2개월간 이중섭의 원화를 볼 수 있는데, 이중섭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새와 아이들’, ‘싸우는 소’ 등 다양한 원화를 접할 수 있다.

5) 시사점

이중섭 예술제에서는 이중섭 외에 다른 작품들을 같이 둘러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미술 분야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료 관람을 선사하여 다양한 문화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중섭에 대한 평가가 작품보다는 그의 비극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중섭의 작품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술사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 탐라문화제74)

1) 소 개

1962년 제주예술제와 순수예술제로 개최하였다. 문화부지정 전통민속축제이자 제주도민의 축제인 탐라문화제는 2001년까지 한라문화제라는 명칭으

74) 자료: <http://www.jejuart.or.kr/>



로 개최되었는데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된 행사로 전국 10대 향토축제에 꼽힐 만큼 제주도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의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행사로서 매년 10월 초 일주일간 열리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불꽃놀이, 시가행진 등의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각 마을별 민속경연대회, 연극공연, 음악제, 무용제, 국악의 향연, 사진촬영대회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제주민속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 조직운영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에 주관하는 행사이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10월 4일간 진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축제를 진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탐라문화제가 47회를 맞는 동안 제주시 중심으로 개최됨에 따라 지역간 균형적 문화예술발전에 걸림돌이 된 점을 감안, 산남지역의 문화예술부활, 문화향수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서귀포시일대와 이중섭거리 중심으로 행사를 할 예정이다.

4) 행사내용

기원대축제는 탐라문화제 서제, 문화의길, 예술의길 축제를 열고 있고 본마당으로 가면 개막축제를 시작으로 전국무형문화재 축제, 제주무형문화재 축제로 구분하여 열린다.

참여행사로 마을축제, 자연·생태 탐방축제, 제주인대화합축제, 제주어축제와 문화재 체험행사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다.

기원대축제를 시작으로 유교식 제례로 주행사장 내에서 봉행한 후 거리 시가행진을 하는데 참가자 수만 수백명이 넘어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개막식



축하 공연과 불꽃축제로 장식한다.

본 행사에 들어와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학생민속예술축제와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한다. 제주어 경연대회는 노래, 연극, 민요 등이 있다.

무형문화재 축제에서는 제주 전통문화가 담긴 제주의 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등 다채롭게 선보이고, 제주역사축제는 제주여성 문화와 관련된 행사와 향토문화 전시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한다.

그리고 생활문화 체험마당은 전통의상 입어보기, 테우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술축제는 전 분야의 공연과 교류공연까지 볼 수 있다.

마을축제는 성읍민속마을 민속한마당축제 외 여러 지역에서 민속체험을 할 수 있고, 씨름대회 및 문학백일장 등 광범위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5) 시사점

반세기에 이르는 탐라문화제의 역사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다. 탐라문화제는 강릉 단오제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위상을 굳혀왔고, 제주지역 50개가 넘는 탐라문화제 프로그램이 50여 건에 이르는 제주축제의 ‘씨앗’이 된 것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탐라문화제의 전통예술축제의 면모에 장소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축제를 열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다는 등이 이유로 잦은 개최장소 이동과 지역주민들 높은 참여율과 동시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여러 잡상인들이 몰려와서 어수선한 축제가 되어 버렸다.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핵심적인 축제 기획안을 만들어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야 한다.

(11) 제주국제합창제

1) 소개

지난 2001년에 시작된 탐라전국합창축제가 2008년부터 제주국제합창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한다. “한국합창의 활성화와 제주문화관광 산업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중 하나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소리로 “화합, 평화, 희망”의 합창을 제주에서 울리고 있고, 클래식에서부터 가요, 뮤지컬합창, 우리민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 와 다양한 합창단이 다양한 음색을 선보이고 있다.

2) 조직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2001년도에는 제주도음악협회에서 주관하다가 2006년도에 탐라전국합창축제조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08년 국제합창제로 가기위해 2008년도에는 제주국제합창제조직위원회로 명칭을 새로 바꾸었다.

3) 개최시기 및 장소

매년 7월 중순에 약 5일간 축제 일정을 잡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탐동해변공연장, 천지연 야외 공연장 등 공연을 치루고 있다. 2008년도에는 관광지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4) 행사내용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시작으로 합창제가 시작된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합창단들이 열띤 경연을 하고 2007년에는 대상이 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원으로 상금을 100% 인상하므로 여러 합창단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만들어 제주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 창작합창의 밤, 창작가곡의 밤이 문예회관에서 열리고, 소년소녀합창제를 통해 어린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 할 수 있다.

매일 저녁에는 야외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야외공연의 레퍼토리는 신나는 음악과 안무와 함께하는 합창곡들을 하므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매년 주제를 달리 하여 합창의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정책토론과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토론을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이슈를 남기고 있다.



그 외 시화전, 만남의 콘서트, 관광지투어콘서트, 소년소녀합창, 축제사진 전시 및 공모전, 음악용품전시, 이미지페인팅, 풍선아트, 파피에콜레 체험 부대행사를 만날 수 있다.

5) 시사점

합창이란 특성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제주를 찾고 있어 제주관광에 활기를 불어주고 있다. 2008년부터 국제합창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외 유명한 합창단과 중창단들이 들어 올 예정이어서 합창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 관광객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축제가 다른 합창제와 달리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합창과 창작가곡을 매년 선보이고 있어 미래의 제주문화예술 자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전파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합창관련 세미나를 통해 합창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의 발전까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획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국제화로 가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계획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주최자와 조직위원회가 보완,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12) 2008년 제주도 축제 통계

<표 16> 2008년 제주도 축제-전반기 축제

축제명	일시	장 소	주최/주관	행 사 내 용
추자돈대산 일출제	1.1	추자면돈대산	추자면주민 자치위원회	·일출제 ·풍어기원 ·전통민속놀이
제9회 서귀포 겨울바다펍권 수영대회	1.12	중문해수욕장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모래조각미술전 ·겨울바다 수영대회 ·민속공연,댄스 등



탐라입춘굿놀이	2.3 ~ 4	시청 관덕정	제주시 민예총제주도지회	·낭쇄몰이 ·입춘굿 ·입춘국수 등
제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21 ~ 23	봉성리새별오름	제주시	·오름불농기, ·불꽃놀이 ·말싸움놀이 ·민속공연 등
제26회 제주유채꽃잔치	3.28 ~ 30	중문관광단지 컨벤션 센터앞	서귀포시 KBS제주방송	·건강걷기대회 ·전국노래자랑 ·체험마당 등
제17회 제주왕벚꽃축 제	3월말	제주종합경기장	제주시관광 축제위원회	·왕벚꽃걷기축제 ·봄맞이패션쇼 ·왕벚꽃테마관 등전시홍보관
제14회 한라산청정 고사리축제	4.19 ~ 20	남원수망리	고사리축제 추진위원회	·고사리꺾기체험 ·고사리요리경연
2008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5.1 ~ 31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도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 소	·설문대 할망제 ·상징탐쌍기체험 ·전통돌문화체험 ·학술심포지엄 등
제6회 제주도새기축 제	5월중	제주경마공원	제주양돈농협 JIBS제주방송	·도새기월드컵 ·제주도감대회 ·풍물놀이 ·어린이사생대회
강정천올림 은어축제	5.23~ 25	대천동 강정천	올림은어축제 추진위원회	·은어나시체험 ·전통은어잡기시연 등
보목수산물품 자리돔큰잔치	5.30~ 6.1	보목항	보목수산물품 자리돔큰잔치 추진위원회	·보목해저탐험 ·자리돔체험마당 등

자료: <http://culture.jeju.go.kr/contents/> 2008년 제주도 축제-전반기 축제



<표 17> 2008년 제주도 축제-후반기 축제

축제명칭	일시	장 소	주최/주관	행 사 내 용
추자도풍어제	7.3-4	추자항[상추자]광 장	추자도수협	풍어제/최영장군제/ 음악회
이호테우축제	7-8월	이호해수욕장	이호동주민자치 위원회	선상낚시/테우노젓기 원담고기잡이/멸치후 리기재현
제8회 제주국 제합창축제	7월	문예회관/해변공연 장 천지연야외광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합창축 제 조직위원회	합창,창작합창곡/축 제공연 등
제8회예래생 태 마을 해변축제	7.26- 27	예래논짓물해변	예래동주민자치 위원회 (760-4841)	맨손으로 낚치잡기/ 낚시체험 초청공연팀 공연
제6회환경사 랑 쇠소깍해변축 제	7.26- 27	효돈동 [쇠소깍해 변]	효돈동연합청년 회 (760-4620)	테우체험/해변가요제 해변사생대회 등
제7회 삼양검 은모래축제	8월초	삼양해수욕장	삼양동연합청년 회	작은음악회/맨손장어 잡기 모래성 쌓기/모래찜 질체험
제13회 표선 해변백사대 축제	8.1-3	표선 해수욕장	표선해변 백사대축제위원 회	모래조기잡이/관광가 족의밤 백사장마라톤
제13회 제주 국제관악제	8월초	해변공연장/문예회 관 한라아트홀/천지연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악경연/시가퍼레이 드 순회연주회
도두오래물수 산물대축제	8.8-1 0	도두항일원	도두동연합청년 회	노천탕체험/도두봉생 태 문화체험/원당체험
법환좁녀마을 축제	8.8-1 0	법환부두	법환마을회	보목해저탐험/자리돔 체험마당
동홍동 한여름 밤 미니콘서트	8.8-1 0	삼부공원	동홍동연합청년 회	음악회 개최
미술관개관1 주년기념행사	9. 1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현대미술관	개관기념행사/야외공 연 기획 및 특별전시회 개최
제11회 이중 섭예술제	9.4-7	서귀포시 이중섭전시관	예총서귀포지부 (739-3286)	설치미술/예술공연/ 풍물놀이
용연야별재현 축제	9.13	제주시용연포구	제주시 제주문화원	풍류문화재현/전통기 예체험 (한시,시조 등)



제6회 제주마 축제	9월 중	제주경마공원	한국마사회제주 본부	말사랑싸움/제주마 학술세미나 말체험 행사
제49회 한국민 속예술축제	9-10 월	서귀포시일원	한국민속 예술축제 추진위 원회	민속예술경연/민속예 술시연 전통예술공연
제14회 서귀 포칠십리축제	9.25- 28	서귀포시일원 (천지연광장)	서귀포시축제위 원회 (760-2653)	칠십리대행진/해양이 벤트 시민화합 한마당
제47회 탐라문 화제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일 원	탐라문화제집행 위원회	기원대축제/민속예술 경연 전통문화·무형문화재 축제
제17회 덕수 리전통 민속축제	10.5	제주조각공원	덕수리마을회 (794-3609)	방앗돌 굴리는 노래 불무공예 재현등
제7회 대정고 을추사 문화예술제	10.6	대정읍 추사적거지	대정문화예술보 존회 (760-4091)	추사선생귀양행차/서 예전 추사탄신제향
제14회 정의 골민속 한마당축제	10.6	성읍민속마을	성읍1리마을회 (787-1306)	전통민속시연/민속체 험장운영
제15회 제주 역새꽃축제	10.11 -12	애월새별오름	도관광협회 (742-8861)	역새꽃트래킹/역새꽃 가요제
제9회 돌이맹 이골프대회	10월 말	도내골프장등	제주시/제주도골 프협회	부부대항전/개인전 (남·여)
제27회 제주 감귤축제	11월 경	서귀포 일원		감귤진상재현 및 품 평회시상식 감귤관련 세미나 농업인 한마당/축하 공연
제8회 최남단 방어축제	11.14 -16	모슬포항	최남 방어축제추 진위원회 (760-4091)	선상남시대회/방어손 으로잡기 해양체험 등
제16회 성산 일출제	12.31 -1.2	성산일출봉	성산일출제축제 위원회 (760-4211)	신년카운트다운/일출 제 세세놀이경연/공연행 사

자료: <http://culture.jeju.go.kr/contents/> 2008년 제주도 축제-후반기 축제



제 4 장 발전방안

제 1 절 문제점 제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축제가 급격하게 증가해 이제는 축제공화국이라는 명칭까지 불릴 정도이다. 하지만 어디서나 거의 유사한 종목들을 서로 모방하여 행사를 위한 축제를 치르기에 급급했던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결국 축제 이름은 다르나 각 지역문화제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음식, 농악,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공통요소들을 포함한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의 주제는 있으나 축제 개최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역문화를 나타내려 하지만 차별화 되고 독특한 내용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적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또한 축제 콘텐츠의 관광 매력성이 부족한 현실인데, 축제의 관광매력성은 관광객이 축제를 참여하게 유도하는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과 욕구,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의 많은 축제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월대보름들부터 축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축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악, 무용, 농악 등 형식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출연진들은 비슷한 수준의 출연으로 축제상품과 관계없는 내용이 나타나고, 탐라문화제의 전통프로그램은 홍보의 부족과 주민들의 외면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왕벚꽃축제인 경우는 비슷한 음식점과 잡상인의 모임으로 깨끗한 이미지 보다는 정돈이 안돼 보이며, 비싼 자릿세로 인해 비싼 음식비는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도 비슷한 실정이다.

축제의 주제가 거창할 뿐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 사정으로 새로운 행사 종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예년 행사를 거의 그대로 하는, 행사를 치루기 위한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또한 축제에서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축제 조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축제의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이고 지역 청년회나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위원회 실무진들도 축제의 경영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축제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체계적인 축제 운영, 기획, 관리, 홍보, 통계 등이 미숙하여 축제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평가가 미흡한 점은 축제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전보다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나 관주도형 축제가 많은 관계로 새로운 형식이나 파격적인 축제보다는 안전성과 의미부여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광 상품화로는 아직도 아쉬운 문제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주민참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강제적인 인원동원에 의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축제의 기획, 운영, 홍보의 미숙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지역축제를 위한 발전방안

1. 지역축제의 차별화

제주의 지역축제는 행사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축제와 유사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요소가 혼재된 종합축제의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축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역 특유의 공간을 이용한 지역축제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에든버러성이라는 지역 특유의 역사자원을 연계시켜 스코틀랜드 군악대의 훌륭한 야외 연극 무대를 창출함으로써 에든버러지의 군악대축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 있다.

제주도를 보면 탐동해변공연장이 있는데 바다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 바닷바람과 접할 수 있는 산책로와 함께 어느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공간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 현재는 개인에게 땅을 분양하여 개인의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공간을 매립하면서 관광과 문화와 축제가 열릴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문화공간이 형성이 될 수도 있었던 아쉬운 공간이다.

한 여름밤의 해변축제,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등 현재에도 매년 여름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공간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독특한 주제개발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함평나비대축제를 들 수 있다. 함평은 전형적인 농촌 군이었다.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나비대축제는 곤충연구소를 설립하고, 나비와 곤충을 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한 결과 1999년 제 1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개최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이미지가 무공해 환경군과 나비가 사는 곳으로, 그것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인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주도의 성산일출제를 보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산일출봉이므로 이를 부각하여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가장 먼저 이를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의 의미를 최대화 할 수가 있다.

고급숙소의 개발도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장한 보광의 휘닉스 아이랜드와 샤인빌 리조트라는 5성급에 가까운 고급숙소, 현대계열에서 운영하는 해비치 리조트들은 그 지역의 관광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연결하여 또 다른 주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1980대부터 2000년까지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는 도태된 관광지와 물가의 경쟁력이 아시아의 변방나라들에게 관광객들을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때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에 눈길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중 신혼여행과 관련된 축제, 결혼과 관련된 축제의 주제를 연구하여 일생에 한번인 결혼과 신혼여행에 아름다운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차별성에서 주제가 그 지역의 가지고 있는 주제로만 차별화 할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도 특징을 제주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때 또 다른 차별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각도 넓혀야 한다.

2. 기획의 전문성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지인들의 방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축제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 철저한 상품기획과 마케팅전략이 전제되는 기획을 문화기획·경영이라고 표현한다.⁷⁵⁾

성공적인 축제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축제의 기획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아 기획력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제, 특별한 주제,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성공하는 축제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축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축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이제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수조건인 것이다.

축제를 개최하는 주최자들은 외부적, 내부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축제의 목표, 구성요소, 참가자의 인구통계적 자료, 예산, 과거의 자료,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디자인 그리고 전략적 홍보까지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행점검표를 통해 행사진행의 체계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⁷⁶⁾

75) 정경훈, 진종훈. 성공하는 문화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2006. p. 371.

76) JUDY ALLEN/ 안경모, 이민재 편역. 이벤트기획전략. 백산출판사. 2005. pp. 12~13.



그래야만 참가자나 관광객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것이다.

제주국제합창축제는 합창이라는 대규모 참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합창단의 참가 부여 동기를 유발 시켜준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합창단이 한번 움직일 때 30명에서 많게는 60명이 움직인다.

다른 지역의 합창단들이 20팀만 참가해도 참가자 수만 몇백명이 되며, 이들과 연결된 가족까지 동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참가자와 관광객이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축제의 매력을 만들어 그들이 감동을 느낄 수 만 있다면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힐 수 있는 축제 중 하나이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축제기획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령화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마라톤축제와 서귀포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등 여러 스포츠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축제가 건강과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적 기획력을 극대화하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꾸준히 개발, 연구해야 한다.

계절적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 기획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봄에는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에 대해서, 여름에는 가족단위의 관광객, 가을에는 가족여행, 신혼여행, 수학여행, 단체여행, 겨울에는 골프, 등산, 스포츠 등, 계절적으로 오는 관광객에게 중심을 맞추어 이들을 위한 축제를 연구하여 여행과 연계된 축제를 만드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3. 관광 상품성

지역의 관광을 통한 지역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은 상품화에 있다.

상품화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품화에는 공급자, 상품, 소비자라는 세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품화의 주체는 공급자이다. 공급자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찾아내어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은 먼저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에 맞는 상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효용성과 동시에 축제의 차별성으로 상품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다른 상품과 차별성이 없다면 관광객들은 제주도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축제를 상품화하여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지역축제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태리의 베니스 카니발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면서 지역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가면산업`에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카니발 기간 누구나 가면을 쓰고,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으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사진모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카니발 방문객 참여 공간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가면구매요구`를 크게 자극 시킨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상품으로 수산물, 꿀, 청정자원인 물, 그리고 제주의 상징인 돌하루방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 각 특징과 연계한 축제를 살릴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축제의 지방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축제의 지방색을 살리고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포장의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은 기술, 정교함, 디자인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포장의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상품을 더 부각시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상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자원의 영속성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전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가치를 더욱 고양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수정, 보완을 해야 하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관광객의 방문시 축제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사내용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교통편에서 숙박, 행사장 장소까지 철저히 안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4. 관공서, 지역관리 기업과 협력 체계 구축

관광축제 주최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축제 기획자, 관련학계의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상호 협력하여 축제의 활성화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⁷⁷⁾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는 관공서가 주관을 하면서 행사장에 입주할 회사를 선정하여 각 회사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또한 회사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시의회의 무역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게 연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주최적인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의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각 항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이익문제를 고려하고 축제참가자들의 후원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서 무조건적인 후원 아닌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현실적인 이익을 줄 수 있게 축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저가항공사가 생겨 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를 찾을 수 있다는 홍보를 관공서와 항공사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수많은 여행사들이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과 연결하여 지역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여행사를 통한 티켓할인, 이벤트 참여, 정보교류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협조가 가능한 업체와 서로간의 링크를 연결하여 홍보 및 유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축제 전담 공무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이 부서이동으로 인해 업무 파악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축제가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무원 인사체계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관공서 중심의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이 축제

77) 윤은중. 지역축제 주체관의 평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2 . p 9.



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제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다.

축제에 적용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축제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때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교통업, 음식업, 소매점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율적인 협의단체의 활동으로 지역축제 발전방안의 상승효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다.

5.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꼭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역 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능을 하며 태도의 변용을 가져다주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축제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상품의 본질을 뒷받침해 주는 고객 지향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지역주민들의 호의적인 태도인 인적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섬 주민들의 특징이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보다 표현력이 약하여 다소 불친절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교육과 습관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제주도와 관련된 전문지식의 습득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 구체적으로 축제에 참가하고 자원봉사자인 경우 그 축제의 목적과 의의, 개념, 행사 내용의 의미 등을 교육받고 친절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성공적인 이벤트 성공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이벤트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인도의 콤벨라는 힌두교의 종교적인 사상으로 인해 참가자 수가 세계 최고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태리의 베네치아카니발은 한동안 지역주민의 참여가 낮고, 방문객만 찾는 축제라는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베네치아카니발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축제 기간 동안 가면과 의상으로 입고 참여하는 일반시민이 늘었기 때문이다.⁷⁸⁾

우리나라의 지역축제와 문화이벤트가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한가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부족하거나, 관 주도의 일방적 행사로 인위동원 관점에서 마지못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조직자 측면에서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최 지역 주민들에게 이벤트 관광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설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고, 그 의견을 조직위 및 관공서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그 지역이 더 나은 지역으로 나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관공서 중심의 축제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 시민참여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6. 축제의 국제화

요즘 들어서 국내축제들이 ‘국제’라는 명칭을 붙여 축제를 여는 경우가 많아 졌다. 그러나 국제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축제들이 국제축제로 나아가고 있다고만 볼 수 없다.

국제화를 표방하여 많은 예산을 주고 외국공연팀과 외국인들을 초청함으로써 국제화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 여러 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국제화로 가기위해서 크게 세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소재의 양면성과 디자인의 개발이다. 소재의 양면성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재와 지역과 관계없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여는 것이다.

진정한 국제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축제의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78)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2005. p. 165.



먼저 지역특성으로 살릴 수 있는 축제로 보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 하듯, 지역의 독창적인 소재를 선정하여 한국에서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외국축제 중 독일의 뮌헨 맥주축제는 독일의 전통 음료인 맥주를 소재로 성공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인도 콤벨라는 치밀한 축제운영으로 인해 성공적인 축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대거 참여로 인한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축제이다.

국내축제 중 국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이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동양에서 유일한 폐각분 백사장에서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소재를 가지고 국제적인 축제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축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우리나라의 전통 탈춤을 소재를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축제들을 벤치마킹하므로 체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성공하고 있는 축제 중 하나이다.

아직 제주도 축제 중에서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듯 하나, 앞으로 가능성 있는 축제로는 탐라문화제, 도새기 축제,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감귤축제 등이 있다. 이 축제들은 제주도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성과 상관없는 소재를 가지고 좋은 축제를 만들 수도 있다.

외국축제의 사례를 보면 이태리 베네치아카니발은 그 지역의 특성과 상관 없는 가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였고 동시에 그 지역의 역사를 접목시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에든버러축제는 공연예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작은 도시에 세계적인 관광객을 모이게 만든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이다.

국내축제에서는 춘천마임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두 축제는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소재를 가지고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볼거리와 자랑거리로 만든 성공적인 축제이다.

제주축제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정월대보름축제와 제주국제합



창제이다. 정월대보름축제는 목야지에 불을 붙여 화려한 불바다의 대장관을 보여주고, 외국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전통적인 것을 독특하고 새로움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치밀한 기획을 만들면 충분히 국제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도 관련행정기관에서는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도시의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초청을 해 축제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제주국제합창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합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열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합창단과 음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시아 중심의 합창축제 및 경연대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축제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축제로서 기대감이 큰 축제이고, 합창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단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기회를 잘 이용해 제주도 관광업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디자인의 개발로 인한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다.

디자인의 개발은 행사 자체의 질을 높여준다. 축제 자체의 파렛트를 사용한 색깔의 아름다움 또는 독특함, 새로움 등의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기획하면 축제의 묘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서울 인사동 쌈지길은 디자인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 평범했던 공간을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쌈지길은 관광객들에 정겨움과 자연스러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 그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문화를 조성하였다.

축제는 자체 소재만이 아닌 그 소재를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관광객과 하나가 되고 새로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한다. 크게 주무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축제의 사소한 부스와 안내데스크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복장, 캐릭터 상품까지 전반적인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대디자인과 공간디자인 그리고 조명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느 외국 축제보다도 볼거리를 제공하여 그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켜 성공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

제주도의 공간디자인은 뛰어난 자연을 배경으로 할 때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 바다와 산이 어울려진 자연환경과 용암동굴로 인한 공간이 축제의 무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현재에도 매년 동굴음악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보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세밀한 공간디자인을 통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공간디자인과 무대디자인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드려 제주 관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개정, 공포하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의 등재 등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인정받게 된 시점에서 지역축제를 제주의 관광과 연계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관광과 지역축제의 개념, 매력, 필요성,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 정치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물리·환경적 효과, 교육적 효과 등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축제 개최지로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목적을 활용하여 축제 측면에서는 장소성의 개념을, 관광목적 측면에서는 축제라는 프로그램이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분석할 수가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과 해안이 공존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청정 휴양지인 제주도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독특한 사회문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또한 첨단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으로 정보의 과학기술을 통한 휴양형 연구개발 거점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의 테마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창적, 차별적인 축제를 반영하고 축제의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그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 축제 전문가들이 축제를 체계적인 시장조사 및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철저하고 체



계적인 기획, 운영, 홍보 등을 하여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극대화 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제를 통한 관광객의 증가는 축제와 연결된 교통업, 숙박업, 음식점, 소매업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축제와 관련이 없는 관광지나 지역 특상품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와 연결된 축제조직위, 관공서, 기업, 언론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역주민이 축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그 축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언제나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했을 때 관광객은 제주도를 한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주도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축제는 관광객의 정확한 표적시장을 조사하여 축제의 연계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문적인 기획력을 발휘하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어 제주를 더 알릴 수 있게 발전하여야 한다.

축제를 통한 무조건적인 개발은 위험한 생각이므로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나아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야 한다.

또한 축제의 공간디자인과 무대디자인 및 조명의 높은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축제의 질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축제는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것이므로 관광객들이 눈에 자극적이면서 화려한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때로는 잔잔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향토적인 색깔과 디자인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축제의 평가체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자체평가에서 벗어나 축제 전반에 걸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축제의 질적, 양적 구조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과 축제의 성격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평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의 결과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남겼다. 이 한계점을 제시하므로 향후 연구자들에게 보다 나은 연구가 수행 되도록 하길 바란다.

제주의 축제는 많았으나 제주도 축제의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미흡한 수준이다. 그나마 있는 평가 자료도 자체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통계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내부평가시스템은 간단한 형식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평가시스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철저한 통계로 인해 축제를 평가받고 개선, 발전 방안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

크고 작은 축제가 있는 제주도는 예산규모의 한계점도 드러나 있다.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축제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축제가 행사를 치르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의 아쉬움이 남았다.

제주도 축제 기획 내용의 완결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홍보책자도 없고 각 축제단체의 홈페이지도 미흡한 실정에다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간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기간 등 정확도도 떨어진다.

이를 보완할 축제전문가나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조언이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제도도 부족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편의 문제점도 검토 대상이다. 시내 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중교통편이 적어 배낭여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축제의 참가자나 관광객들에겐 불편함이 있었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렌트의 안전성문제와 도로의 관리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부산에서 열린 2008년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서는 일본축제까지 소개가 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남았다.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기획에서도 전국지도에 제주도 자체를 놓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제주도에 이 박람회에 빠져 있었다는 점은 제주도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제주도에 있는 축제를 다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관련자들이 지혜를 모아 시급히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글로벌문화포럼 2007 서울- 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의 문화. 문화관광부. 2007.
-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74호. 2000.
- 신동일. 제주형 축제평가모델 개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05.
-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 문화관광부. 2004.
- 송정일. 지금은 관광연출시대. 백산출판사. 2000.
- 이경모. 이벤트학원론. 백산출판사. 2005.
- 이종석.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2000.
- 이창동. 창의한국. 문화관광부. 2004.
- 20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2007.
-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8.
- 정경훈, 진종훈. 성공하는 문화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글누림. 2006.
- Judy Allen/ 안경모, 이민재 편역. 이벤트기획전략. 백산출판사. 2005.
- 최승이, 이미혜. 국제관광론. 대왕사. 2001.
- 축제운영을 위한 매뉴얼. 한국관광공사. 2000.
- 한변선. 문화관광지리학. 삼광출판사. 1997.

2. 논 문

- 강성일. 관광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2001.
- 김두리. 지역축제에서 전통춤 공연의 현황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7.
- 김찬 외.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 김철원, 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류정아 외.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6.
- 박수완. 관광지매력과 여행상품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관성. 여행학연구. 1997.
- 박철호. 축제의 관광상품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관성. 여행학연구. 2004.
- 오상훈 외. IPA를 이용한 섬 관광지 매력성 평가- 제주섬의 사례. 관광학연구. 2005.
- 이수리. 지역축제가 지역 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춘천마임축제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혜원. 지역축제의 무용공연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 훈. 축제와 도시관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윤설민 외 3명.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관광목적지와 축제의 매력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춘천국제마임축제와 보령머드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2007.
- 윤은중. 지역축제 주제관의 평가 만족도에 관한 연구-2002 강경 첫갈 축제를 중심으로- 2002.
- 정선미. 관광속성이 체험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제갈돈 외.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축제유형별 변수간 상호성을 중심으로. 한국지개발학회지. 2006.
- 황동열.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3. 사이트

- 고승익의 축제이야기 29 제주축제탐방 (26)제주황금도새기축제. 제민일보. 2007.
<http://www.jemin.com>
- 김순자. 관광학개론 사이버강의실. 2007.
- 금산 인삼축제 http://www.geumsan.go.kr/festival/autumn_main.jsp
- 도새기축제 <http://porkfestival.net/>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보령 머드축제 <http://www.mudfestival.or.kr/>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http://www.maskdance.com/>
정월대보름들불축제 <http://www.buriburi.go.kr>
제주마라톤축제 <http://www.jejumarathon.com/>
제주왕벚꽃축제 <http://culture.jeju.go.kr/contents/>
제주유채꽃잔치 <http://www.70ni.com/>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춘천 마임축제 <http://www.mimefestival.com/>
충주 세계무술축제 <http://www.martialarts.or.kr/>
탐라문화제 <http://www.jejuart.or.kr/>
함평 나비대축제 http://www.geumsan.go.kr/festival/autumn_main.jsp



(Abstract)

Revitalization Plan for a Tourist City through Festivities

- Focused on the Jeju Island -

Yang, Tae-hyun

Department of Culture Management Science

Graduate School of Drama and Art

Dankook University

Advisor : Prof. Chun, Ho-su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vised and proclaimed the "Special Law o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on January, 2002 to nurture Jeju-do and develop it into an international free city equipped with multiple functions, such as international tourist & resort city, cutting-edge knowledge industry city, etc.

In addition, Jeju-do greeted a historical year of the launching in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n June, 2007, it was listed in UNESCO's World Natural Heritage; thus, it came to be acknowledged as an international tourist city. However, at the time when this city has made partially positive achievement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with the expansion of no-visa entry system for foreigners and investments attraction from home and abroad, Jeju-do realized that it's not sufficient in the methods to make Jeju-do widely known through festivals.



To seek a solution plan for such issues requiring research work, this research looked into related books, treatises, research presentation, web sites and government office-hosted forum data, and analyzed them on the basis of experiences in practical affairs involved in festivals.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is research defined the concept of tourism, its attraction, its effect and influence on local festival & its necessity, and theorized the inter-relationship with each other. Due to the link of tourism with local festivals, it is possible to induce re-visit to tourist attractions and to develop of tourist attractions through festivities. It is the very means of festivities that makes it possible to develop not only physical tourist attractions but also invisible tourist attractions. It is urgent to switch the environment in which tourists visit mostly during a high-demand season to a visit environment regardless of a slack season or peak season by offering a variety of attractions and empirical experiences through festivities. Thus, local image identification, together with a local economic effect, could be firmly established.

In addition, it's important to grasp whether there remain issues or improvements to suggest their subsequent statistics by concretely ramifying the analysis and current situation of local festivals and to make possible an efficient management, cultivation and support of Jeju district festivals.

Further, this research inquired into the revitalization & development plan for Jeju-do tourist city through festival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ases of local festivals, domestic local festivals, and Jeju district festivals along with suggestion of their resultant problem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do research into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festivals.

First, differentiation of local festivals should be made; Jeju-do can highlight a theme of a festival effectively in that there exist a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and specific local culture in comparison with other districts.

Second, professionalism in planning is needed.

The planning & management by professionals in festivals is required for avoidance of improper use of related budgets and tourist satisfaction should be also achieved with maximization of festival programs in order to effectively highlight a theme proper to a district.

Third, local festivals should be commercialized. Selection of a differentiated theme and professional planning strength to maximize festivals' value are a must.

Fourth,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set up between governmental offices , enterprises and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 Successful festival should be achieved by grasping a short & long term benefits with each other.

Fifth,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really matters. It's because it's hard to make a successful festival without residents' participation even if all problems involved in festivals are resolved. With an aggressive & affirma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 successful festival should be created by consideration of Jeju-do image and firm establishment of its identity.

This research is aimed at contributing, what is little, to the development of Jeju-do while making diverse analyses and grasping a current situation to give clues to solution to revitalization of a festival in link with Jeju-do tourism. Even presently, there still



remains a regret over the fact that there aren't many properly organized because festival's professionalism fails to be up to par. This issue that an objective festival assessment system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festival is a part to continuously be researched.

Key Words : festival, tourism, differentiation, specificity

